



<span style="color:red">↑</span> 코스피	2867.99 (+0.61)	<span style="color:blue">↓</span> 코스닥	858.55 (-1.87)
<span style="color:red">↑</span> 금리 (미국 3개월)	3.120 (+0.006)	<span style="color:red">↑</span> 환율 (원/달러)	1384.70 (+3.10) (10일)



경쟁률 3000대 1  
만점 청약통장 우르르  
청약시장 후끈  
02

# 가장 얇고 배터리 강화된 AI 폴더블폰... 화면 주름도 개선

## 삼성전자 '갤럭시 언팩 2024'

폴더블 폼팩터+갤럭시 AI 결합  
구글 협업으로 제미니 AI 앱 탑재  
퀄컴 '스냅드래곤 83세대' 칩셋  
헬스케어 웨어러블 '링'도 첫선

삼성전자가 인공지능(AI) 기능을 탑재한 새 폴더블폰 '갤럭시 Z6 시리즈'를 대중에게 최초 공개했다. 갤럭시 Z6 시리즈는 역대 Z 시리즈 중 가장 얇은 두께와 늘어난 배터리 수명을 자랑한다. 특히 단점으로 지적됐던 내부 화면 주름도 개선됐다. 삼성전자는 첫 반지형 웨어러블 기기인 '갤럭시 링'도 공개하며 헬스케어 시장 선점을 가시화한다.

〈관련기사 3면〉

삼성전자는 10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갤럭시 언팩 2024(Galaxy Unpacked 2024)' 행사를 개최하고, 폴더블 폼팩터와 갤럭시 AI를 결합한 '갤럭시 Z 폴드6'와 '갤럭시 Z 플립6'를 전격 선보였다. 이날 행사에서는 갤럭시 Z6 시리즈는 물론 ▲갤럭시 링 ▲갤럭시 워치7 ▲갤럭시 버즈3 등 신제품이 소개됐다.

삼성전자 MX사업부장 노태문 사장은 "새롭게 출시되는 갤럭시 Z 폴드6와 갤럭시 Z 플립6는 궁극의 성능과 완성도를 자랑한다"며, "한층 더 발전한 갤럭시 AI와 최적화된 폴더블 폼팩터는 사용자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 MX사업부장 노태문 사장이 10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의 중심지 '카루젤 뒤 루브르(Carrousel du Louvre)'에서 개최된 하반기 '갤럭시 언팩 2024(Galaxy Unpacked 2024)' 행사에서 혁신적인 폴더블 폼팩터와 갤럭시 AI를 결합한 '갤럭시 Z 폴드6'와 '갤럭시 Z 플립6'를 전격 공개하고 있다. /삼성전자

갤럭시 AI와 최적화된 폴더블 폼팩터는 사용자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 ◆무게는 가볍게 내구성은 강화

삼성전자의 새 폴더블폰인 갤럭시 Z6 시리즈는 AI 기능 탑재와 함께 가벼워진 무게와 늘어난 배터리 수명을 자랑한다. 삼성은 구글과의 긴밀한 협업을 바탕으로 더 혁신적인 AI 경험을 제공한다. 갤럭시 Z 폴드6와 갤럭시 Z 플립6에는 최신 '구글 제미니(Gemini)

'Gemini' 앱이 탑재돼 언제든지 AI 기반으로 맥락을 이해하는 '어시스턴트'를 호출할 수 있다. 사용자가 화면 하단의 모서리를 쓸어 올리거나 '헤이 구글'이라고 말하면, '제미니 오버레이(Gemini overlay)'가 실행돼 정보 습득, 글쓰기, 계획 세우기 등 다양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슬림해진 디자인과 함께 내구성도 한층 강화했다. 외부 충격을 보다 분산시킬 수 있도록 듀얼 레일 힌지(Hinge)의

구조와 설계가 한단계 더 진화됐다. 메인 화면의 재질을 강화해 그간 지적됐던 화면 주름도 개선됐다. 또 애플리케이션프로세서(AP)는 퀄컴의 '스냅드래곤 83세대'가 탑재됐다. 이 칩셋은 고성능 CPU, GPU, NPU(Neural Processing Unit)를 결합해, AI 프로세싱을 최적화했다. 이를 통해 통화 중 실시간 통역, 텍스트 번역, 생성형 사진 편집 기능 등 온디바이스 AI 기능이 구현된다.

진화된 배터리 수명도 눈에 띈다. 갤럭시 Z 폴드6의 배터리 용량은 4400mAh로 전작과 동일하나 배터리 수명이 길어졌다. 갤럭시 Z 플립6는 4000mAh 배터리를 탑재해 대폭 확대된 배터리 용량을 자랑한다.

◆오는 24일 전 세계 출시... 국내는 12일부터

삼성전자는 7월 24일부터 '갤럭시 Z 폴드6', '갤럭시 Z 플립6', '갤럭시 버즈3 시리즈'를 국내를 포함해 전세계에 순차 출시한다.

갤럭시 Z 폴드6는 256GB, 512GB, 1TB 모델로 출시된다. 가격은 각각 ▲222만 9700원 ▲238만 8100원 ▲270만 4900원이다. 갤럭시 Z 플립6는 256GB, 512GB로 출시되고, 가격은 각각 148만 5000원, 164만 3400원이다. 갤럭시 Z 폴드6는 실버 세도우, 핑크, 네이비 색상으로, 갤럭시 Z 플립6는 블루, 실버 세도우, 옐로우, 민트 색상으로 출시된다.

삼성닷컴과 '삼성 강남'에서는 단독 색상이 출시된다. 갤럭시 Z 폴드6는 크래프트 블랙과 화이트 색상이, 갤럭시 Z 플립6는 크래프트 블랙, 화이트, 피치 색상이 단독으로 출시된다. '갤럭시 Z 폴드6', '갤럭시 Z 플립6'의 국내 사전 판매는 7월 12일부터 18일까지 일주일간 진행된다.

/프랑스(파리)=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 7대 금융지주, 장애인 고용률 1%에 불과

ESG 의무화에도 장애인 고용 부진  
장애인 고용 부담금 220억 달할 듯

7대 금융지주의 장애인 고용률이 의무 고용률인 3.1%에 한참 못 미치는 1.0%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유럽연합(EU)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상장사의 ESG 공시가 의무화되며 ESG가 금융권의 화두로 떠올랐지만 국내 금융회사의 장애인 채용이 주요 선진국 대비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7대 금융지주(신한·KB·하나·우리·BNK·DGB·JB)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그룹 전체 임직원 대비 장애인고용률은 평균 1.0%에 그쳤다. 가장 높은 장애인고용률을 기록한 KB금융이 임직원의 1.47%(395명)를 장애인으로 고용했지만, 민간기업의 의무 고용률인 3.1%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 ◆ 주요 금융지주 장애인 고용률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르면 50인 이상 규모의 민간기업은 전체 고용의 3.1%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한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 시 전체 근로자 대비 장애인 근로자 비율에 따른 고용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지난해 윤창현 국민의힘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 4대은행(신한·KB·하나·우리)이 장애인 고용 미달로 납부한 고용 부담금은 174억원 규모였다.

은행별 고용 규모를 고려해 추산한다면, 올해 7대 금융지주의 9개 은행(신한·KB·국민·하나·우리·부산·iM·경남·광주·전주)이 내야 할 장애인 고용 부담금은 220억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미국, 유럽연합 등 선진국이 내년부터 상장사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를 의무화하고, 국내에서도 ESG 공시 의무화를 추진하면서 기업의 채용 다양성(여성·보훈자·장애인) 역시 기

업 가치를 평가하는 주요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주요 선진국 대비 국내 금융기관의 장애인 임직원 비중은 낮은 수준이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따르면 일본의 전체 금융업 종사자 대비 장애인 비율은 2.3%(2022년 기준)다. 국내 금융기관 평균의 2배 이상이다. 장애인이 활발한 독일(2021년)과 호주(2018년)의 전체 금융권 종사자 대비 장애인 비율은 각각 4.7%를 기록해, 국내 금융기관 평균의 4배를 웃돌았다.

### ◆ "산업별 특성 따라 지원책 있어야"

국내 금융지주사의 장애인 채용은 미흡한 수준이다. 지난해 말 7대 금융지주의 총 장애인 임직원 수는 1076명으로 전년 대비 26명 늘어나는 데에 그쳤다. 3개 금융지주(KB·신한·우리)는 오히려 장애인 임직원 수를 줄였다.

〈2면에 계속〉 /안승진 기자 asj1231@

## 전 세계 청년과학기술인 모여 지속가능 미래·역할과제 공유

세계 한인과학기술인대회  
차세대 리더스 포럼 개최

세계 곳곳에서 활약하는 청년과학기술인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제2회 세계 한인 과학기술대회의 첫 번째 프로그램 '차세대 리더스 포럼'이 지난 9일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원에서 열렸다.

〈관련기사 4면〉

오는 11일까지 열리는 '세계 한인 과학기술대회'는 과학기술에 대한 전세계적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국내외 한인 과학기술자 및 차세대 한인과학기술자간 교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행사다. 차세대 리더스 포럼은 국내외 한인 청년과학기술인의 활동을 소개하고 이들이 만드는 지속가능한 미래와 과학기술 분야의 도전, 역할과제를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태식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장은 개회사에서 "청년 과학기술인 여러분이 서로의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협력을 모색하며 더 나은 미래와 한국 과학기술계의 발전에 큰 동력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기조 발언은 박배호 미래세대위원회 공동위원장(건국대학교 총장석학교수(물리학))이 맡아 미래세대위원회 역할과 비전을 소개했다. 박 공동위원장은 "미래세대위원회는 지속적인 논의와 소통을 통해 청년 과학기술인들이 역량을 발휘하고 저변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며 "청년과학기술인 지원 사업 추진을 통해 청년과학기술인의 창의적인 도전과 학문 간 융합 및 응용의 선순환을 이루는 청년과학기술인 중심의 지속가능한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서현 기자 seoh@

##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윤 대통령, 인태사 방문 하와이 순방 마무리... 나토 참석차 워싱턴으로 / 사진 뉴스스  
▲ 여민생특위 "소상공인·자영업자 위기 관리시스템 구축 필요"

▲ 국민의힘 김 여사 문자 '읽씹' 논쟁 일주일째... 총선 책임론 공방도  
▲ 원희룡 "당장 갈라지면 다 죽어... 최악은 내부에서 싸우는 것"



▲ 민주당, '수사·기소 분리' 검찰개혁법 당론 추진... 공소청·중수처 신설  
▲ 조국혁신당 '임성근 구명 녹취록'에 "VIP 누군지 밝혀야" / 사진 뉴스스



# 경쟁률 3000대 1, 만점 청약통장 우르르... 청약시장 '후끈'

## 과천 디에트르 퍼스티지

분양제 적용에 '반값 아파트' 주목  
해당지역·기타경기서 '만점통장'

산성역 헤리스톤 84점 '최고가점'  
동탄2 대방 엘리움 더 시그니처  
82㎡A 기타경기 경쟁률 3395대 1

청약시장이 뜨겁다. 한 단지에 10만 명 이상이 몰리면서 3000대 1이라는 경쟁률을 기록하는가 하면 경기도에서도 청약 만점 통장이 즐줄이 등장했다.

10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이날 당첨자를 발표한 '과천 디에트르 퍼스티지'에서 청약 최고 가점은 만점인 84점이다. 그것도 해당지역과 기타 경기에서 만점 통장이 각각 나왔다.

84점 만점은 무주택 기간 15년 이상에 부양가족이 6명(7인 가구) 이상이어야 가능하다. 올해 들어서는 지난 5월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조합원 취소분)' 1가구 모집에서 84점 보유자가 당첨된 바 있다. 당첨만 되면 20억 원 시세차익이 기대되면서 청약자가 대거 몰렸다.

과천 디에트르 퍼스티지는 과천 지식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 아파트 모습. /뉴스시

정보타운 공공택지로 공급되는 민간 아파트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서 과천 지역 마지막 '반값 아파트'로 관심을 모았다. 평균 당첨가점이 주택형에 따라 70~75점으로 높았다.

청약가점은 무주택 기간과 부양가족 수, 통장 가입 기간 등으로 산정한다. 무주택 기간과 청약통장 가입 기간은 각각 15년이 넘을 경우 32점, 17점의 만점을 받을 수 있다. 부양가족 수는 2명(3인 가구) 15점 ▲3인 20점 ▲4인 25점 ▲5인 30점 ▲6인(7인 가구) 이상 35점 등으로 점수가 더해진다.

4인 가족이라면 무주택 기간에서 15년 이상으로 만점을 받아도 가점이 최대 69점이다. 이번 과천 디에트르 퍼스티지 청약에선 5인 가구 이상만 당첨된 단 예기다.

만점통장이 나온 단지는 또 있다. 성남시 수정구 산성동에 들어서는 '산성역 헤리스톤'에서도 최고 가점이 84점이었다.

특히 헤리스톤의 경우 반포나 과천 단지와 달리 수억 원 이상의 시세차익이 기대되는 곳도 아니었다. 비규제지역으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아 분

양가가 주변 시세와 비슷했지만 만점 가점자가 통장을 던졌다.

전용면적 84㎡B 타입에서 최고 가점이 84점이었고, 74㎡A 타입에서도 최고 가점이 83점이었다.

서울 마포구 공덕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을 통해 들어서는 '마포자이힐스테이트 라첼스' 역시 고가점자만 당첨이 됐다. 84㎡A 형이 평균 당첨가점이 74점으로 가장 높았고, 당첨자 최저 가점은 64점이었다.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뛰기 시작하면서 청약 경쟁률은 점점 더

높아지는 분위기다.

청약홈에 따르면 '동탄2신도시 동탄역 대방 엘리움 더 시그니처'는 전일 186세대 모집에 무려 11만6621건의 청약이 접수됐다. 모든 평형이 1순위에서 청약을 마감했다.

82㎡A 형의 경우 기타경기에서 2만 6366명이 몰려 경쟁률이 3395대 1을 기록했다. 전용 63㎡는 두 가지 타입 모두 기타경기 경쟁률이 2000대 1을 넘어섰다.

이 단지는 화성시 1년 이상 거주자에게 일반공급 세대의 30%를 우선 공급한다.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자에게 20%, 나머지 50%를 수도권 거주자(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6개월 미만 거주자)가 신청할 수 있다.

동탄역 인근 마지막 민간 분양인 테다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서 청약자가 몰린 것으로 보인다. 분양가는 최고가 기준 전용 63㎡와 82㎡가 각각 5억 5660만원, 6억8237만원이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 '파주 운정3 이지더원'도 청약 경쟁률이 세자릿수를 기록했다. 최고 경쟁률은 84㎡A 형으로 기타경기가 598대 1로 집계됐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 “서울 집값 상승세... 3기 신도시 신속공급”

최상목 부총리, 경제장관회의  
“이달 내 소상공인 전환보증 신설  
내달 저금리 대한대출요건 완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서울 일부 지역에서 집값이 오름세를 보이는 등 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3기 신도시의 신속한 공급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관계부처가 함께 시장 상황을 예의 주시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근 부동산 시장은 전반적인 지표 안정에도, 서울 일부 지역 중심으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변동성이 커지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이어 “3기 신도시 등 기계화된 물량을 신속 공급하고, 필요 시 추가 공급 확대 방안도 적극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안정화를 위해, 9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범위 확대 등 규제를 점진적으로 내실화·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 가계부채 하향안정화관리기조를 확고히 유지하겠다고도 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시

지난주 발표한 25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과 관련해서는 “지난 8월 전기요금 지원 대상을 확대한 데 이어 이번 달 내 상환기간 연장을 위한 지역신보 전환보증을 신설한다”며 “소상공인 애로를 가중시키는 비용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소상공인이 각종 정책정보를 한 번에 안내받을 수 있는 '윈스톱 플랫폼'도 이번 달 내로 가동을 시작한다고 전했다. 또 “다음 달에는 정책자금 상환연장과 저금리 대한대출 요건을 완

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및 현장애로 해소 방안'도 논의됐다.

한국판 '타임스 스퀘어' 조성을 목표로, 디지털전환관 설치 등과 관련한 규제를 개선한다. 우선 현재 서울 코엑스(1기)와 명동·광화문광장·부산 해운대(2기) 등 총 4곳에 설치된 옥외광고 자유표시구역을 오는 2026년 중 추가(3기)로 조기 지정할 계획이다.

또 현재 건축물 해체공사는 모두 허가 신고가 필요한 상황이다. 앞으로는 안전문제가 경미한 경우, 이를 면제해 기업의 시설투자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임시운행 중인 시험·연구용 자율주행차에 대한 허가 기간을 기존 5년에서 최대 9년까지로 확대한다. 허가기간이 이미 만료된 연구용 자율주행차량도 연장 신청을 허용한다. 현재 운행 중인 자율주행차는 총 440대로, 이 중 70대가 기간 만료 차량이다. 아울러, 중소병원과 보건·의료 분야 스타트업에 대상으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새 비즈니스 창출 및 범람에 나선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윤석열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에서 사무엘 파파로 인·태사령관과의 장대를 사열하며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뉴스시

## “北, 러와 불법 무기거래... 세계평화 위협”

尹 대통령, 하와이 '안보순방'  
인태사령부서 작전현황 보고받아

윤석열 대통령의 1박2일간의 하와이 순방은 '안보 순방'으로, 한반도 안보위기를 견인한 한미동맹을 확인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 '안보 순방'의 정점을 찍은 일정은 9일(현지시간) 윤 대통령의 한미 인도태평양사령부 방문이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의 참석 차 미국을 방문한 윤 대통령은 이날 한반도 안보의 중추인 인태사령부를 찾아 사무엘 파파로 인태사령관으로부터 작전 현황을 보고 받았다. 태평양사령부에서 인태사령부로 바뀐 후 대한민국 현직 대통령의 첫 방문이다. 또한 1981년 전두환 당시 대통령, 1995년 김영삼 당시 대통령 방문 이후 29년 만이다.

윤 대통령은 인태사령부장병들을 격려하는 자리에서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 같은 행보를 고려하면 10~11일에 있을 나토 정상회의에서도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러시아를 규탄하고, 북러 군사협력에 대해서도 언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북한은 러시아와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고 군사·경제협력을 강화하며 국제사회의 우려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정권은 주민들의 처참한 삶은 외면한 채,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고 핵의 선제 사용을 법제화했다”며 “최근에는 오물풍선 살포와 같은 비열한 도발도 서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은 러시아와 불법적인 무기거래를 통해 한반도는 물론, 세계 평화까지 위협하고, 지난날에는 러시아와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고 군사, 경제 협력을 강화해 국제사회의 우려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렇게 무모한 세력으로부터 우리의 자유민주주의와 경제적 번영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강력한 힘과 함께 가치공유국 간 연대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인태사령부 방문으로 1박2일 간의 하와이 순방을 마무리하고 나토 정상회의의 등에 참석하기 위해 워싱턴D.C.로 출발했다. /서예진 기자 syj@

## “영업점 축소 상황... 장애인 고용 한계”

>> 1면 '7대 금융지주...서 계속

금융지주들은 대면 업무가 많은 업종 특성상 장애인 고용률을 끌어 올리기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한 금융지주 관계자는 “금융권 업무 대다수가 고객을 응대하는 업무인 만

큼, 장시간 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을 채용할 수 있는 업무는 다소 한정적이다”라며 “장애인 채용을 늘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경영 효율화를 위해 은행 영업점도 축소하는 현상에서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업종별로 장애인 채용 여

력에 차이가 있는 만큼, 산업별 특성에 맞는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보고서를 통해 “산업별로 장애인 고용 환경에 차이가 있는 만큼 산업별 이행 수준에 차이가 나타난다”라며 “이러한 차이를 당연시하기보다는 산업별 특성에 맞게 기업의 장애인 고용의 양과 질을 높여 ESG 성과를 달성할 수 있게 지원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



# 카톡 등 AI 실시간 통역 강화... S펜 '스케치 변환' 지원

## SAMSUNG

갤럭시 AI 기반 성능 대폭 개선  
폴드6, 전작대비 두께 1.3mm ↓  
플립6, 커스터마이징 기능 제공

삼성전자가 갤럭시AI의 기술력을 탑재한 동시에 역사상 가장 얇고 가벼운 폴더블폰을 공개했다. 갤럭시 Z폴드6와 Z플립6는 외관상 큰 변화는 없지만 AI 기능으로 인해 성능이 대폭 개선됐다. 문서는 물론 대화까지 자연스러운 통번역이 가능해졌다. 특히 배터리 용량이 대폭 확대됐으며 카메라 성능을 크게 끌어올렸다.

◆외국어 장벽 허문다 “통역 번역 OK”  
갤럭시 Z폴드6는 가벼워진 무게와 함께 다양한 AI 기능을 자랑한다. 주요 특징은 ▲‘노트 어시스트’(Note Assist)를 통한 AI 요약 기능 ▲실시간 통역 ▲텍스트 번역 ▲개선된 카메라 ▲가벼워진 무게 ▲늘어난 배터리 수명 등이다. 폴드6는 역대급 얇은 두께를 자랑한다. 폴드6의 펼친 두께는 전작보다 0.5mm, 접은 두께는 1.3mm 얇아진다. 색



10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갤럭시 언팩 2024에서 갤럭시 Z 폴드6(좌)플립6(우) 제품이 전시되어 있다.



상은 웨도우, 핑크, 네이비로 출시된다. AI 기능을 통한 성능도 역대급이다. ‘삼성 노트’ 앱에서 사용자가 작성한 내용을 번역과 함께 요약해준다. 자동으로 서식을 변환해 주는 노트 어시스트는 ‘음성 녹음 텍스트 변환’ 기능을 추가했다. 이를 통해 사용자는 ‘삼성 노트’ 앱에서 바로 음성을 스크립트로 변환할 수 있고, 스크립트를 번역과 함께 요약도 할 수도 있다.

노트 어시스트에는 ‘PDF 오버레이(PDF Overlay) 번역’ 기능도 추가돼

PDF 문서 내용이 그대로 번역된다. ‘삼성 키보드’에는 간단한 키워드만으로도 메일 본문이나 SNS 게시글의 문구를 작성해 주는 ‘글쓰기’ 기능이 새롭게 추가됐다.

통화 시 실시간으로 양방향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실시간 통역’은 기본 ‘전화’ 앱을 넘어 다양한 메시지 앱과 연동된다. 카카오톡, 라인, 구글 미트, 왓츠앱, 텔레그램 등 다양한 앱에서 사용이 가능해져 더욱 제한 없는 의사 소통을 지원한다.

무엇보다 AI를 통해 S펜 경험을 새롭게 확장했다. 새롭게 추가된 ‘스케치 변환’ 기능은 갤러리의 사진이나 노트 위에 S펜으로 스케치를 더하면 생성형 AI가 단순한 스케치를 정교한 이미지로 완성해준다.

◆‘카메라·배터리 걱정 NO’  
갤럭시 Z 플립6의 경우 단점으로 지목되던 카메라 성능과 배터리 용량이 대폭 개선된다. 카메라 화소는 전작 1200만에서 5000만 화소로 대폭 향상된다. 이는 갤럭시S24일반·플러스와 동일

한 카메라 성능이다. 배터리 용량은 전작 3700mAh에서 대폭 확대된 4000mAh를 탑재한다. 이에 따라 더 늘어난 배터리 수명을 자랑하며 영상 재생 시간 23시간(전작 20시간), 오디오 재생 시간 68시간(전작 57시간)을 제공한다.

외부 디스플레이 화면(플렉스 윈도우)은 전작(3.4인치) 보다 0.5인치 넓어진다. 특히 외부 화면이 커지면서 AI를 활용한 다양한 사용자 경험이 제공된다. ▲전면 디스플레이 통역 기능 ▲AI를 통한 채팅 내역 확인 ▲커스터마이징 등이다.

휴대성이 뛰어난 디자인과 사용자가 자신만의 개성을 드러낼 수 있도록 커스터마이징 기능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약 86.1mm의 커버 스크린 ‘플렉스 윈도우(FlexWindow)’는 갤럭시 AI와 만나 더욱 향상된 사용성을 제공한다. 새롭게 추가된 ‘답장 추천(Suggested replies)’ 기능은 최근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를 분석해 맞춤형 답장을 제안한다.

/프랑스(파리)=구남영 기자 유튜브 영상 제공  
koogija\_tea@metroseoul.co.kr YouTube

# 반지만 끼면 AI 건강관리... “하루종일 착용해도 괜찮네”

## 체험기

### 갤럭시 링

반지 형태의 웨어러블 기기  
정밀한 센서 강점... 수면 등 분석

삼성전자가 10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갤럭시 링을 공개하며 헬스케어 시장 확장에 나섰다. 갤럭시 링은 최초의 반지 형태로 제작된 웨어러블 기기로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집약된 센서 기술로 수면 중 편안하게 주요 건강 지표를 추적하고 개인화된 인사이트를 제공한다.

‘갤럭시 링’의 강점은 정밀한 측정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위치 제품군에 비해 가볍다는 점에서 거부감 없이 긴 시간 착용하는 것에 유리하다. 과연 그럴까. 기자는 직접 갤럭시 링을 착용하고 수면에 취해봤다.

◆“어! 진짜 가볍네...” 디자인·성능 기대 이상

‘갤럭시 링’을 처음 착용했을 때 가장 놀란 것은 생각보다 너무 가벼웠다는 점이다. 센서와 기능을 가지고 있는 스마트 기기라 어느정도 두껍고 무거울 것이라는 막연한 상상을 하고 있었는데, 착용해 보니 정말 가벼웠다. 두께도 꽤 얇은 편이었다.

디자인은 제품의 결면이 오목하게 들어가는 유니크함이 눈길을 끌었다. 색상은 ▲티타늄 블랙 ▲티타늄 실버 ▲티타늄 골드 3가지로 출시가 되는데, 블랙과 실버는 무광으로 좀 더 세련된 느낌을 줬다.

‘갤럭시 링’은 총 9개의 사이즈로 출시가 된다. 구매를 원하는 소비자는 별도의 사이즈 키트를 통해 자신에게 꼭



반지 형태 웨어러블 기기 갤럭시 링 /구남영 기자

맞는 사이즈를 확인하고 구매할 수 있다. 삼성전자는 삼성닷컴에서 구매를 원하는 소비자에게는 먼저 사이즈 키트를 보내준다고 설명했다.

‘갤럭시 링’은 가벼운 무게로 인해 전혀 불편함이 없었다. 삼성전자는 갤럭시 링을 소개하면서 수면 건강 강점을 강조했다. 정말 잠을 잘 때도 전혀 불편함이 없었다. 내구성도 합격점을 받았다. 갤럭시 링의 외부의 오목한 디자인은 독특한 매력을 보이면서도, 스크래치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었다. 몇시간 착용해 보는 동안 여기 저기 마찰이 있었지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

삼성전자는 ‘갤럭시 링’에 티타늄 그레이드 5 소재를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IP68등급과 10ATM의 방수 방진 기능을 지원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손을 씻을 때나 샤워할 때도 벗어야 하는 불편함이 없었다.

배터리 수명도 만족스러웠다. 몇시간 사용해서는 배터리 사용량에 큰 변화가 없었다. 삼성전자는 “한번 충전하

면 최대 일주일 가량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배터리 사용성과는 별개로 개인적으로 전용 충전 케이스가 상당히 마음에 들었다. 반지 사이즈와 정확히 일치된 투명 충전 케이스는 충전을 위해 반지를 뺏으면 하얀 빛의 원형 LED 라이트가 들어오면서 연결 상태를 알려 주는데, 매우 고급스러운 느낌을 줬다.

◆건강관리·스마트폰 제어 등 다양한 기능 지원

갤럭시 링은 가벼운 무게로 잠자리에서도 전혀 부담없이 착용할 수 있었다. 헬스 기능을 제공하는 위치도 있지만, 솔직히 시계를 차고 자는 것은 습관을 들이기 전까지는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갤럭시 링은 처음 착용 후 수면에 들었을 때도 어떠한 불편도 없었다. 24시간 쉬지않고 건강관리를 해주는 제품으로는 이만한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갤럭시 링’은 센서를 통해 수면 패턴을 분석해 준다. ▲실제 수면 시간 ▲잠들기까지 걸린 시간 ▲수면중 움직임 ▲심박수 ▲수면 중 호흡수 등 새롭게 추가된 5가지 지표를 통해 수면의 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갤럭시 링’은 수면 외에도 다양한 건강관리 기능을 제공했다. 심박수가 너무 높거나 낮으면 알람을 주는 ‘심박수 모니터링’, 걷거나 달릴 때 자동으로 운동을 감지해 칼로리·심박수 구간 등을 측정하는 ‘운동 트래킹’ 등 다양한 헬스 기능을 지원했다.

에너지 스코어(Energy Score)로, 갤럭시 링으로 측정된 헬스 데이터를 갤럭시 AI가 분석해 최적화된 건강 가이드를 제공했다. ‘갤럭시 링’과 연결된 갤럭시 스마트폰에서 매

일 아침 컨디션을 점수로 확인하고, 컨디션 회복에 도움이 되는 건강 메시지를 제공받을 수 있었다. 예를 들어, 전날 밤잠을 수면 질이 안 좋았던 날은 컨디션 점수가 낮게 나오고, 잠들기 전 따뜻한 물을 한잔 마시고 잠에 들라는 가이드가 제공됐다.

개인적으로 가장 인상적이었던 기능은 알람끄기 기능과 사진촬영 기능이다. 기자는 알람을 여러 번 설정해뒀을 때 불편함이 많았다. 하지만 갤럭시 링을 한번 클릭하면 알람은 꺼진다. 특히 단체사진을 촬영할 때 휴대폰을 멀리 세워두고 링을 클릭하면 자동 촬영되는 점도 매력을 더했다.

◆갤럭시 기기 연계... 분실걱정 없이 사용

‘갤럭시 링’은 다른 갤럭시 기기와 함께 사용하면 더욱 다양한 기능을 사용할 수 있었다. 갤럭시 스마트폰의 ‘삼성 파인드(Samsung Find)’에 ‘갤럭시 링’을 등록하면, 갤럭시 링의 위치 확인이 가능해 분실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었다.

‘갤럭시 링’은 재미있는 기능도 가지고 있었다. 엄지와 검지를 두번 맞대는 ‘더블 핀치’ 제스처를 취하면 연결된 갤럭시 스마트폰의 카메라를 조작할 수 있어 셀카를 찍거나 원거리에서 촬영 시 아주 유용했다.

/프랑스(파리)=구남영 기자



갤럭시 Z 플립6 올림픽 에디션 /삼성전자

## ‘플립6 올림픽 에디션’ 공개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공식 파트너(Worldwide Partner) 삼성전자가 2024 파리 올림픽·패럴림픽 참가 선수단을 위해 특별 제작한 ‘갤럭시 Z 플립6 올림픽 에디션’을 10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진행된 갤럭시 언팩 행사에서 공개했다.

‘갤럭시 Z 플립6 올림픽 에디션’은 오는 12일(현지시간)부터 프랑스 파리 상젤리제 거리에 위치한 삼성 올림픽 체험관에 전시될 예정이다. 삼성전자는 1만 7000여 명의 파리 올림픽 참가 선수 전원에게 ‘갤럭시 Z 플립6 올림픽 에디션’을 제공해, 각국에서 모인 선수들이 언어의 장벽없이 올림픽의 감동을 생생하게 공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올림픽 에디션은 얇고 날렵한 디자인을 자랑하는 ‘갤럭시 Z 플립6’의 옐로우 색상에 금빛 올림픽·패럴림픽 엠블럼과 삼성 로고가 새겨진 특별한 디자인을 자랑한다.

함께 제공되는 전용 플립스튜디오 케이스는 프랑스 국가대표팀의 개막식 의상을 디자인한 LVMH 그룹 럭셔리 남성복 브랜드 벨루티(Berluti)와의 협업으로 완성됐다. 벨루티만의 가죽 염색 기술인 파티나(Patina) 기법과 올림픽 오륜기에서 영감을 받은 색 조합을 더한 디자인으로 올림픽 정신과 화합의 가치를 표현했다.

/프랑스(파리)=구남영 기자





# “안정적인 연구환경 조성, 창의성·독창성 발현 열쇠”

## 기조강연

박 배 호  
미래세대 공동위원

한인 청년들 네트워크 형성 기회  
학술적·경제적 환경 제공 되어  
혁신적연구 위한 종합적 지원必

“우리나라에만 있는 청년과학기술인들의 범위를 벗어나서 전 세계에서 활동하는 한인 청년과학기술인들의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 믿습니다.”

박병호 미래세대위원회 공동위원장이 9일 서울 강남구 과학기술원에서 열린 제2회 세계한인과학기술인대회 첫 프



박배호 미래세대 공동위원장이 9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제2회 세계한인과학기술인대회'에 대해 “우리나라에만 있는 청년과학기술인들의 범위를 벗어나서 전 세계에서 활동하는 한인 청년과학기술인들의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이번 대회 첫날 열린 '차세대리더스포럼'에서 기조 발언에 나서고 있는 박 위원장. /메트로신문

그램 차세대 리더스 포럼에 참석했다.

그는 이날 포럼 기조발언에서 “과학

적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학술적, 경제적, 생활적 환경이 제공되어야 한다”며 “미래세대위원회에서는 청년과

과학기술인들의 협의체를 조직하고 이들이 주도하는 정책 제언서를 발간했다”고 했다.

이어 “미래세대가 직접 운영하는 세미나 개최, 과학기술 특강, 멘토링, 스타트업, 카페 참여 등 각종 과학기술활동도 지원하겠다”며 “매년 정기적으로 청년네트워킹 회의를 개최해 프로젝트 결과 발표, 과학 기술에 대한 긍정적 경험 공유 및 참여자들 간의 자발적 활용 유도를 위한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하고 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 이 차세대리더스포럼도 차세대 글로벌 리더로서 국내 한인 청년과학기술인들이 모여 서로의 활동을 소개하고 과학 기술 분야에서 청년과학기술인들의 도전과 역할 과제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청년과학기술인들이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기 위한 과학기술 분야의 새로운 시각과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과학 기술적 성과들이 글로벌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자긍심을 가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위원장은 이날 포럼의 의미에 대해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우리 한인 과학기술인들이 전 세계 흩어져 있는데, 그중에서도 청년과학기술인들이 굉장히 주목받는 분들이 많다”며 “오늘 포럼은 세계에서 활동하고 계신 청년과학기술인들의 활동을 들어보고 청년과학기술인들이 만나 의견을 공유하는 자리, 그런 장을 마련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도현 수습기자 yunbgb0611@metroseoul.co.kr

# “열에너지 전환으로 지속가능한 미래 꿈꾼다”

## 강연

강 기 성  
프리츠 하버 인스티튜트 오브  
맥스 플랑크 소사이어티 연구원

환경 문제 해결 목표 연구 진행  
기계 학습 통한 열전 재료 개발  
유용한 전기에너지로 전환 연구

“그동안 과학기술의 발전은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주기도 했습니다. 저는 제 연구를 통해 환경 문제에 긍정적 영향을 끼치고 싶습니다.”

프리츠 하버 인스티튜트 소속 강기성 연구원은 인터뷰에서 자신의 ‘제일원리 전산모사 와 기계 학습을 통한 지속가능한 열전 재료 개발’ 연구의 의미를 환경 문제에서 찾았다. 그는 제2회 세계한인과학기술인대회 첫번째 프로그램으로 열린 차세대 리더스 포럼의 첫 발제자

로 나서기도 했다.

강 연구원은 인터뷰에서 자신의 연구에 대해 “그동안 그냥 버려지던 열에너지를 유용한 전기에너지로 전환해 새로운 에너지 생산 채널을 확보하고 전반적인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연구”라며 “이를 통해 에너지 자원을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예시로 자동차 엔진의 열을 이용한 자동차 배터리를 충전과 데이터 센터에서 발생하는 열을 이용한 전기 생산을 들고

궁극적으로 탄소가스 배출을 줄이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과학자의 길을 선택하게 된 계기를 묻는 질문에는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재료를 찾고 싶다는 호기심과 세상에 이로운 일을 하고 싶다는 소망이 초등학생 때부터 과학자의 길을 꿈꾸게 했다”며 “내 연구가 개인의 과학적 호기심을 충족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꾸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글·사진=박대성 수습기자 iunmds@



9일 한국과학기술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차세대 리더스 포럼에서 강기성 연구원이 열전 재료 개발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 “감염병 대응, 적극적 소통 중요”

## 강연

정 성 목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 박사후연구원

감염병 위기 대응 문제 해결 방안 제시  
통합 데이터 모델링·수평적 소통 제안

“적극적인 소통. 이 부분이 바로 차세대 연구자들의 역할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성목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 박사후연구원이 미래의 감염병 위기 대응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바로 수평적 관점에서 진행되는 연구자들의 활발한 소통이다.

9일 '제2회 세계 한인 과학기술인대회'에서 두 번째로 발제를 진행한 정성목 박사후연구원은 미래 코로나19 위기 대응의 일환으로 방대한 양의 데이터에 기반한 모델링 허브 구축 필요성을 제안했다.

정 연구원은 “(질병 연구 시) 데이터 모델에 사용하는 변수 값이 각 탐마다 다르기 마련이다. 첫 번째 불확실성은 여기서 오고, 두 번째 불확실성은 모델 구조가 다를 때 발생한다”며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는 통합된 기준 마련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정 연구원은 수평적 관점에 기반한 연구자들의 활발한 소통의 중요성도 언급했다. 정 연구원은 “통합된 모델이 좋아도 나쁜 모델들이 섞이면 오히려 양상이 더 나빠질 수 있다”며 “양질의 데이터 확보를 위해 서로 신랄하게 비판하는 문화가 필요하다. 미국에서는 상하관계가 있더라도 편안하게 얘기하지만, 한국에서는 말하기 어려울 때가 있다”며 “시너지 효과를 위한 적극적인 연구 토론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정 연구원은 연구팀과 정부 간의 활발한 소통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보건 당국이 갖고 있는 실질적인 질문 공유도 중요하지만, 모델링 결과가 만들어졌을 때 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어떤 과정에서 한계점이 있는지 분명하게 소통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안재선 수습기자 wotjs4187@



## “초고해상도 현미경, 나노세계 열다”

## 강연

김 두 리  
한양대학교 교수

최첨단 기술로 미세 구조 관찰 혁신  
화학성분 미세 변화까지 이미징화

광학현미경의 한계를 뛰어넘은 ‘초고해상도 형광 현미경 기술’의 발전으로 기술 혁신의 바람이 불고 있다.

지난 9일 제2회 세계 한인 과학기술인대회에서 열린 ‘차세대 리더스 포럼’에서 세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두리 한양대학교 화학과 교수가 ‘차세대 리더의 미래를 형성하는 최첨단 기술과 융합 혁신: 초고해상도 현미경 기술 기반의 융합 연구 사례’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김 교수는 “초고해상도 형광 현미경 기술을 활용하면 높은 공간 해상도의 이미지를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공간적, 분광학적 정보를 아주 미세한 수준까지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초고해상도 형광 현미경 기술은 광학 현미경의 해상도를 30배 이상 향상시켜 기존의 광학현미경으로 관찰하지 못했던 나노미터(nm=10억분의 1m) 수준의 작은 구조까지 관찰할 수 있는 기술이다. 1nm는 성인 머리카락 굵기의 10만분의 1에 해당한다.

김 교수에 따르면 초고해상도 형광 현미경 기술은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탄소중립으로도 나아가는 데 조력할 수 있다. 그가 개발한 ‘단분자 분광 이미징 기술’은 초미세량의 화학 성분을 구별해 이미지로 측정할 수 있다.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포집해 연료·화학 원료로 활용하는 과정에서 반응물, 중간물, 생성물의 변화를 이미징화하여 좀 더 쉽게 측정 가능하다. /이혜민 수습기자 hyem@



## “농업 미래, 기후변화 대응 필수”

## 강연

윤 푸 린  
서울대 농업생명과학 선임연구원

기후변화·지속 가능한 자원관리 필수  
자원 연관성 고려한 통합적 연구 지향

“농업은 기후의존적 산업으로 지속 가능한 자원 관리와 기후변화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9일 제2회 세계 한인 과학기술인대회에서 진행된 차세대 리더스 포럼에 참석한 윤푸린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연구원 선임연구원이 ‘물·에너지·식량·탄소 넥서스(연결)를 통한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한 자원 관리’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농업은 기상 조건의 영향을 크게 받으며 물과 에너지 자원을 투입해 식량을 생산하는 등 외부 요인과 주요 자원 간 서로 연계된 구조를 가진다.

윤 연구원은 “각 지역의 기후와 자원 이용을 반영해 전 과정에 걸친 탄소 배출 산정 및 평가가 필수적”이라고 발언했다.

윤 연구원은 이어진 인터뷰에서 “차세대 리더십 포럼 주제에 맞게 청년 과학기술인으로서 기후변화 대응이나 자원을 어떻게 이용하는가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며 넥서스를 이용해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법과 함께 탄소 감축할 수 있을지에 대해 연구 중이다.

윤 연구원은 “지속 가능한 자원 관리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한다”며 “향후에는 이런 데이터가 연계해서 다양한 자원 간의 연관관계를 고려한 통합적이고 정량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싶다”고 말했다. /전지원 수습기자 jiw13@





kt, 당신과     미래 사이에

대한민국 사장님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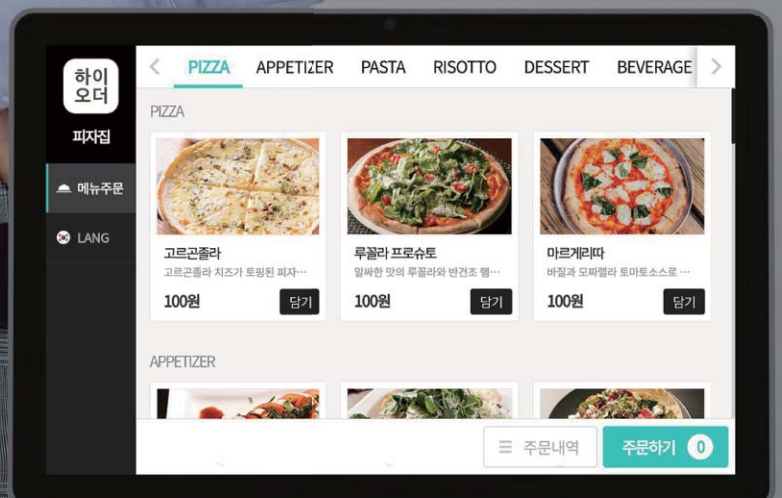
미래가 기다려요!



KT 하이오더와 신한은행이 최대 150만원 상당의 혜택을 드립니다

KT 하이오더를 신규 개통한 사장님(개인사업자)들께 신한은행이 최대 100만원 현금을, KT가 최대 50만원 상당의 현물을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 기간은 2024년 4월 26일 부터 예산 소진 시 까지 법인사업자, 개인은 지원 불가. 하이오더 기존 고객 및 소상공인 진흥공단에서 제공하는 스마트상점 매장은 지원 불가. 신한은행 지원 사항 및 지급 조건은 신한은행 영업점, KT 지원 사항 및 지급 조건은 kt.com. '00'번 통해 확인 가능





# 민생에 방점 찍은李 “‘먹사니즘’이 유일한 이데올로기”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철학)

## 이재명, 당 대표 후보 출마

주 4.5일제 제시... 2035년엔 4일제 에너지전환 시대 기회 잡아야 균형발전·신재생에너지 비전 언급 與 협치 질문엔 “與 하는 건 없고 하자고 하면 반대하고 발목 잡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8·18 전당대회 당 대표 후보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먹사니즘’이 바로 유일한 이데올로기여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7·23 전당대회를 앞두고 ‘김건희 여사 문자 무시 논란’을 두고 공방을 벌여 민생에 대한 논의가 실종됐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을 기회로 삼아 민생 정책 방안에 대한 관심을 유도한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전 대표는 10일 민주당 당사 당원실에서 “경제가 곧 민생이다. 성장의 회복과 지속 성장이 곧 민생이자 ‘먹사니즘’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이 전 대표는 ‘기본사회’를 강조했다. 앞으로 다가올 인공지능(AI) 로봇이 인간 노동을 대부분 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손진영기자 son@

체하는 초과학기술의 시대에 대비해 소득·주거·교육·금융·에너지·의료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구성원의 기본적인 삶을 권리로 인정하자는 것이다.

노동시간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줄여야 한다고 했다. 그는 “먼저 ‘주4.5일제’를 자리 잡게 하고, 최소한 2035년까지는 주 4일 근무제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앞으로 다가올 에너지 전환 시대를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도 했

다. 그는 “국가주도의 대대적 투자로 ‘에너지고속도로’, 즉 인공지능 기반의 지능형 전력망을 전국에 건설해야 한다”라고도 했다. 기후 위기에 따른 에너지 전환 시대에 재생에너지 생산과 공급시스템을 제대로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균형발전도 언급했다. 이 전 대표는 “햇빛(태양광발전)·바람(풍력발전) 같은 무한자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생산해 판매하는 새로운 소득 기반이 생겨먹고사는 문제가 해결되고 여유로운 삶이 가능

하면 ‘떠나는 지방’은 저절로 ‘돌아오는 지방’으로 변할 것”이라고도 했다.

이 밖에도 이 전 대표는 ▲인공지능(AI) 인재 양성 ▲한반도 안보 리스크 감소 위한 평화 구축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출생기본소득·기본주거·기본금융·기본의료·기본교육 시행 및 확대 ▲에너지와 통신 서비스 기본적 이용권 확보 등을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기자회견의 질의응답 중 신재생에너지 비전에 대해 설명했다. 신재생에너지에 관련해 구체적인 방안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전 세계 재생에너지 비율이 전체 에너지의 30%를 차지하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9% 정도에 불과하다”며 “축소했던 2030년 재생에너지 목표를 이 정부 출범하면서 종전 문재인 정부 때보다 낮췄는데 빨리 복구시킬 뿐만 아니라 목표도 늘려야 한다”고 했다.

종합부동산세(중부세)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천천히 생각해 보겠다”고 답했고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개편에 대해서 “당내 의견은 다양하다”며 “금투세도 근본적으로는 거래세와 연동돼 있었기 때문에 함부로 연동

이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시기 문제가 있어서 고민해야겠다는 생각 하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 1인 독주체제가 차기 대선에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 “우리 당원과 국민들이 ‘어떤 도구를 선호하느냐, 어떤 대리인을 선호하느냐’라는 측면에서 봐야지 누가 과연 지도자냐, 나쁘게 표현하면 권력자냐 이렇게 보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과 협치를 묻는 질문에는 “국정 기본책임은 정부와 여당이 지는 것이다. 야당 기본역할은 견제와 감시”라며 “그런데 여당이 워낙 뭘 하는 게 없고 하자는 게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이) 뭘 하자는 게 있어야 협치할 텐데, 하자는 건 없고 우리가 그나마 ‘하자’고 하면 반대하고 발목만 잡으니, 협치가 숨 쉴 공간 자체가 없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김건희 여사 문자 무시 논란’을 두고 벌어진 공방에 대해선 거리를 뒀다. 그는 이에 대해 “민망스럽다 이 말씀으로 대신하겠다”고 답했다.

/윤도현 수습기자 yunbgb0611@metroseoul.co.kr



국민의힘 제4차 전당대회 부산·울산·경남 합동연설회가 열린 10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오디토리움에서 나경원(왼쪽부터), 윤상현, 원희룡, 한동훈 당 대표 후보들이 무대에 올라 당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뉴스시스

## ‘與 텃밭’ 부산서 민주당 상대 전투력 과시

### 부·울·경 합동연설회

尹 탄핵청원 관련 청문회 실시 순직 해병 특검법 처리 등 비판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원희룡·한동훈·윤상현·나경원 후보가 10일 여당의 텃밭인 부산을 찾아 제10야당 민주당과 맞서 싸워 이길 수 있는 후보는 자신뿐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이날 오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개최한 부·울·경(부산·울산·경남) 합동연설회에서 당 대표 후보들은 이번 총선에서 대통령 탄핵 저지선 확보를 막아준 곳이 부·울·경이라고 치켜세웠다. 그리고 최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대통령 탄핵소추 청원 관련 청문회를 실시하고 순직 해병 특검법을 처리한 것을 비판하면서 자신의 전투력을 과시했다.

원희룡 후보는 “민주당이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고 있다”며 “중대 범죄 혐의자 한 명을 지키기 위해 문지마 특검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 탄핵 청문회 실시의 건을 통과시켰다. 법과 원칙은 안중에도 없다. 이대로 가면 나라가 무너진다”며 “그래서

나섰다. 국토부 장관으로서 화물연대, 건설노조와 싸운 원희룡, 이재명 당 대표로서 민주당과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는 이재명과 싸웠다. 대장동 일타강사로 싸웠다. 계양에서도 싸웠다. 저는 어떤 희생도 아끼지 않고 불의에 맞서 싸울 때는 싸우는 것이 정치라는 믿음을 갖고 있다”며 “현장으로 달려가 온갖 위협을 이겨내고 화물연대 사건을 이겨낸 것처럼 맨 앞에서 이재명과 싸우겠다”고 자신했다.

또,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저는 문재인 정권에서 부당한 탄압에 5년 동안 지금까지 싸웠고 180석 거대 야당과 맞서 싸웠다”며 “제가 그동안 한번이라도 비굴하거나 도망간 적 없다. 몸사린 적 없다”고 반문했다. 청중은 “아니요”라고 화답했다.

한 후보는 “제가 비겁해 지길 바라나. 저는 그렇지 않겠다. 지금보다 더 앞장서겠다. 여러분이 그걸 바라시니까”라고 부연했다.

윤상현 후보는 “권력의 중심에 서봤지만 허망한 짓이었다”며 “권력을 보고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 역사를 보고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무소속으로 2번 당선됐다. 매년 민주당하고 싸워 돌아왔다”며 “제 몸에 민주당과 싸워 이기는 승리의 DNA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어려워질수록 더 강해지는 승리의 DNA가 제 몸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했다.

나경원 후보는 “이재명 민주당의 대통령 탄핵 열차가 광란의 폭주를 하고 있다”며 “이 전 대표는 1심 선고를 앞두고 무차별 탄핵과 특검으로 대한민국 국회를 아수라장으로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또, “법사위를 장악한 민주당은 기상천외한 그리고 듣도보도 못한 반헌법적 탄핵 청문회를 어제 의결했다”며 “저들의 야만적인 정치, 후진적인 정치를 막아내야 하지 않겠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의원 신분이 아닌 원후보와 한 후보에 대해 “여러분, 본회의장에 당당히 앉을 수 있는 대표와 본회의장에 입장 못하는 대표, 본회의장 마이크를 잡을 수 있는 당 대표와 못 잡는 대표 사이 전력 차이가 있지 않겠나”라며 “108명의 현역 의원과 함께 원내, 당 전략을 함께하면서 이재명의 민주당을 당당하게 이길 수 있는 사람 누구인가”라고 물었다. /박태홍 기자 pth7285@

## 대통령실 “임성근 구명 로비 전혀 무관”

도이치모터스 추가조작 의혹 논란 대통령실·대통령 부부 관련 부인

대통령실은 10일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 도이치모터스 추가조작 사건 관련자 이모 씨(전 블랙필인베스트먼트대표)가 ‘VIP’를 언급하면서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의 구명 로비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대통령 부부는 전혀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이모 씨가 ‘VIP에게 내가 얘기하겠다’며 임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에 나섰다는 일부 의혹 보도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물론 대통령 부부도 전혀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은 근거 없는 주장과 무분별한 의혹 보도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하며,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서는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최근 도이치모터스 추가조작 사건 관련자인 이 씨가 지난해 8월쯤 해병대 출신 변호사에게 “내가 (임 전 사단장) 절대 사표내지 마라, 내가 VIP한테 얘기를 하겠다”고 말한 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을 입수했다.

이에 이 씨가 임 전 사단장의 ‘구명 로비’에 나섰을 가능성이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 측 주장과 일부 언론 보도를 통해 제기됐다.

하지만 이 씨는 임 전 사단장을 알지 못해 구명 로비도 한 적이 없고, 보도된 통화 내용은 짜깁기라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예진 기자 syj@

## 김한길 “北이탈주민, 韓 국민 되도록 배려”

(국민통합위원장)

‘북배경 주민과의 동행’ 심포지엄

김한길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장은 10일 “북한이탈주민이 단순한 정착 지원 대상에서 벗어나 경쟁력을 갖춘 당당한 대한민국 국민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강서구 통일부 남북통합문화센터에서 열린 ‘북배경 주민과의 동행’ 정책 제안 심포지엄에서 “북한에서 오신 분들은 그 숫자는 많지 않지만 헌법상 우리 국민이고, 우리 역사와 여러 의식 등 많은 것을 공유한 분들”이라고 말했다.

이어 “저 역시 부모가 북한 함경북도

출신인 실향민의 아들”이라며 “탈북민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면 늘 마음이 편치 않다”고 소개했다.

김 위원장은 “(북 이탈주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현행 탈북민 명칭 개선부터 지역 주민과의 접점을 늘려 지역사회가 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며 “그 외에도 국내와 제3국 출생 자녀 교육 지원 등 종합적인 정주 환경 조성 방안을 제시하였고, 현장의 최일선 기관인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권한과 책임을 명확하게 부여하는 방안도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서예진 기자



# Frosty Delights

Sweet + + Cool

분홍백도빙수  
14,000

팥빙수  
7,000

밀크팥빙수  
8,000





# 보험사 새 화두 '여성 특화'... 유방암에 정신건강까지 살펴

여성 경제 활동 참여율 55.6%  
의료 지출·보험 가입률도 늘어

보험업계 특화상품 개발 가속화  
연령대별 보장수요 세분화 필요



여성의 보험 수요가 증가하면서 여성 특화 보험시장이 성장하고 있다.

/유토이미지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향상되면서 여성보험 수요 역시 증가하고 있다. 보험 소비자로서의 여성의 역할과 보장 수요가 변화하면서 여성 특화 보험시장이 한 단계 더 성장할 것이라 전망이 나온다.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여성의 사회참여 등으로 보험 구매 의사결정에 있어 여성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 질병, 상해 등 각종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도 높아지면서 보험 수요도 증가했다.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여성 특화 건강 위험' 보고서에 따르면 여성의 경제 활동 참가율은 2001년 49.4%에서 2023년 55.6%로 6.2%포인트(p) 증가했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면서 증가율 측면에서는 남성을 앞질렀다.

성향 측면에서도 여성이 의료서비스에 대한 지출이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남성보다 강한 위험회피 성향 등의 이유로 여성의 보험 가입률이 상대적으로

로 높아 여성을 주요 고객층으로 하는 시장의 성장 잠재력이 크다는 평가다.

김석영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홍보배 연구원, 김성균 연구원은 "위험 회피 성향이 강할수록 보장성 보험에 대한 수요가 높다"며 "여성의 보험 가입률을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다"고 밝혔다.

보험사들은 그동안 건강보험을 중심으로 여성 특화 보험을 판매해 왔다. 1990년대 중반 이후 부인과질환, 골다공증, 관절염 등을 종합적으로 보장해주는 여성 특화 건강보험상품이 출시됐다.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여성의 보험소비 경향이 남성보다 강하다는 측면에서 여성전용 CI보험이 출시

된 바 있다.

최근 보험업계는 여성의 보장 수요에 부합하는 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여성 특화 보험사 선두주자인 한화손해 보험은 여성 건강보험을 통해 유방암(수용체 타입) 진단비 특약, 산후우울 증 치료비 특약 등의 여성 특화 특약과 가임력 보존서비스, 난소나이 측정(Anti-Mullerian Hormone·AMH) 검사 서비스 등의 여성 특화 서비스를 제공한다.

삼성화재는 여성 전용 운전자보험을 선보이면서 여성 특화 상품의 카테고리 확장을 꾀했다. 운전자에게 필요한 비용과 상해 담보는 그대로 보장하고 아이를 키우는 여성 운전자를 위한 세부

보장을 담았다.

보험연구원은 "보험사는 여성에 특화된 보험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층을 세분화하고 시장을 확대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이라며 "사회적 책임과 회사의 이미지 강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증가하는 여성의 보험 가입 수요와 상품 판매량에 따라 지속적인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서는 주담보 중심의 보험상품 개발이 이뤄져야 한다는 제안이 나온다. 아울러 여성의 연령대별 보장 수요를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보험연구원은 "과거에도 여성을 위한 특화 보험상품이 건강보험을 중심으로 판매됐으나 경험 부족 등으로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며 "주담보 중심의 여성 특화 보험상품 개발이 이루어진다면 보장 담보 및 가격 측면에서 상품의 효율성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연령대에 따라 주요 보장 수요가 상이하다는 측면에서 여성의 연령대별로 보장 수요를 세분화해 특화상품을 개발한다면 여성 특화 보험 시장은 한층 더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주형 기자 gh471@metroseoul.co.kr

## 카드 News

KB국민카드

자기계발·편의 업종  
월 최대 1.5만원 할인

KB국민카드가 병역의무를 이행한 청년들을 위한 특화 상품을 공개했다.

◆ 자기계발 영역서 할인

KB국민카드는 'KB국민 히어로즈 체크카드'를 출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상품은 전월 실적 20만원을 충족하면 자기계발 및 생활편의 업종에서 월 최대 1만5000원을 할인한다. ▲ 외국어학원·서점 업종 ▲ 여학시험 ▲ 교통 ▲ 이동통신 등이다.

발급 대상은 전역 후 3년 이내 또는 만 34세 이하의 제대 군인이다. 행정안전부와 연계한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병역정보를 확인한다. 별도 서류 제출 없이 KB페이 혹은 홈페이지에서 발급할 수 있다.

출시 기념 응모 행사도 진행한다. 오는 16일부터 내달 31일까지 KB페이로 2만원 이상 이용 시 추첨을 통해 ▲ 100만원 캐시백 ▲ 프라다 트라이앵글 로고 카드지갑 ▲ 신세계 모바일 3만원 ▲ CU 모바일 1만원 상품권 등을 지급한다.

# 저축은행 '예담대' 잔액 뚝... 은행권으로 대거 이탈

예담대 잔액, 전년대비 25% ↓  
은행권 수신 경쟁력 강화 영향

저축은행의 예적금담보대출(예담대) 잔액이 800억원대로 줄었다. 저축은행 예적금상품 경쟁력이 떨어진 영향이다. 예담대는 연체 위험이 낮은 효자상품 노릇을 해왔다. 저축은행권의 고심이 깊어지는 이유다.

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1분기 전국 저축은행 79곳이 취급한 예담대 취급 잔액은 839억6500만원이다. 전년 동기(1112억8660만원) 대비 24.94%나 감소했다. 직전 분기와 비교하면 130억원 가까이 줄었다. 최근 5년간 저축은행 예담대는 900억~1500억원 미만 수준에서 등락을 반복했는데 800억원대로 떨어진 것은 관련 집계를 시작한 이래 처음이다.

예담대란 미리 가입했던 예적금을 담보로 자금을 빌리는 대출상품이다. 통상 예적금 상품에 1~2%포인트(p)



저축은행의 예적금담보대출 잔액이 줄면서 800억원대로 떨어졌다.

/뉴스

의 가산금리를 적용해 대출금리를 산출한다. 차주는 예적금을 해지하지 않고 자금을 융통할 수 있다. 저축은행은 현금을 담보 잡는 만큼 연체 위험을 낮출 수 있다. 최근에는 공모주 청약 등에

활용되는 추세다.

예담대는 저축은행의 하반기 경영전략에 꼭 맞는 대출상품인 만큼 수요 감소가 겁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저축은행은 하반기 돌파구로 담보대출을 꼽고 있다. 수익성과 건전성을 모두 확보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한때 저축은행 예담대 취급액은 3700억원까지 상승한 바 있다.

현재 저축은행은 사업자를 위한 주택담보대출 중심으로 영업을 확대하고 있다. 아파트와 주택, 토지 등을 담보로 자금을 내주는 만큼 시장 상황에 따라 담보가치가 변동될 우려도 존재한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예담대가 주 수입원이 될 수 없지만 저축은행이 취급하는 대출 상품 가운데 차주와 기관 모두 부담이 없는 유일한 상품이다"라며 "수요가 감소한 만큼 맞춤형 전략을 수립해야 하는 시기다"라고 말했다.

저축은행 예담대가 쪼그라든 배경에는 은행권의 수신 경쟁력 강화가 자리

잡고 있다. 은행과 저축은행의 수신금리가 유사한 양상을 보이면서 상대적으로 우량한 은행권으로 자금이 이동했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이날 기준 은행권의 정기예금(1년물)금리 상단은 연 3.9%다. 저축은행권 대비 0.1%p 낮은 수준이다. 이어 적금금리 상단은 연 6%로 은행과 저축은행이 똑같다.

실제로 지난 5월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예담대 잔액은 3조8877억원이다. 3월을 기점으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예담대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받지 않는 만큼 스트레스 DSR 2단계가 시행되는 시점부터 본격적으로 증가할 것이라 관측이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저축은행 수신 잔액이 대거 이탈하면서 예담대 잔액이 감소했을 것"이라며 "하반기에도 은행을 중심으로 예담대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산 기자 kimsan119@



신한카드 본사 전경.

/신한카드

신한카드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  
편의성개선 공로 인정

신한카드의 공공마이데이터를 활용해 소비자 편의성을 개선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 사회적 비용 감소 기여

신한카드는 2024년 디지털정부발전 유공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10일 밝혔다.

디지털정부 발전 유공 포상은 플랫폼 혁신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를 선발한다. 신한카드는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해 편의성 향상과 사회적 비용 감소에 기여했다는 설명이다.

지난 2021년 공공 마이데이터 시작 단계부터 데이터 활용을 선도했다. 금융거래에 필요한 행정정보를 제공받아 카드발급 및 대출 자동심사 업무 프로세스에 활용하고 있다.

고객 데이터 접근성 개선과 안전한 데이터 관리 체계 구축한다. 행정안전부와 협력해 공공 마이데이터의 활용 범위를 확장할 예정이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공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디지털 금융 환경 발전에 기여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산 기자

# '푸르지오 라디우스 파크' 분양 시작

대우건설, 내일 건본주택 개관  
성북구 장위6구역 재개발 단지

대우건설은 오는 12일 '푸르지오 라디우스 파크'의 건본주택을 개관하고 본격적인 분양을 시작한다고 10일 밝혔다.

서울 성북구 장위동 장위6구역을 재

개발하는 이 단지는 지하 3층~지상 33층, 15개 동 총 1637가구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전용면적 59~84㎡ 718가구가 일반분양으로 공급된다. 3.3㎡당 평균분양가는 3507만원이며, 입주하는 오는 2027년 3월 예정이다.

일반분양 물량을 전용면적별로 살펴보면 ▲59㎡A 225가구 ▲59㎡B 52가

구 ▲59㎡C 70가구 ▲59㎡D 23가구 ▲84㎡A 45가구 ▲84㎡B 46가구 ▲84㎡C 51가구 ▲84㎡D 206가구 등 수요자들의 선호도 높은 중소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청약일정은 오는 15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6일 1순위, 17일 2순위 청약 순으로 접수를 한다. 당첨자 발표는 23일이며, 정당 계약은 8월 5일부터 나흘간 진행된다.

푸르지오 라디우스 파크는 지하철 1

호선·6호선 석계역 바로 앞에 들어서는 더블 초역세권 단지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서울에서 귀한 신축 아파트이자 '푸르지오' 브랜드 대단지라는 상징성을 갖춘 만큼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한편, 푸르지오 라디우스 파크의 건본주택은 청량리역 인근인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일원에 위치해 있다.

/안상미 기자 smahn1@



# 현대차그룹, 英·인도 등 판매 신기록... 친환경 혁신 주효

친환경차 중심 브랜드 경쟁력 강화  
작년 英 판매 19.6만대... 역대 최대  
美 공장 신설 등 글로벌 공략 가속

현대자동차그룹이 글로벌 시장에서 거침없는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현대자동차와 기아, 제네시스는 올 상반기 북미를 비롯해 신형 자동차 시종으로 떠오르는 인도를 비롯해 유럽을 대표하는 자동차 시장인 영국에서 판매량 기록을 새롭게 작성하고 있다. 특히 친환경차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미래 브랜드 경쟁력도 쌓아가고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그룹이 '자동차 선진시장'으로 평가받는 영국서 지난해 역대 최대 연간 판매대수를 기록했다. 총 19만6239대로 올해 20만대 판매를 목전에 두고 있다. 특히 올 상반기 현대차·기아·제네시스 3개 완성차 브랜드는 전년 동기 대비 1.3% 증가한 10만7326대를 판매했다. 영국은 독일에 이어 두 번째로 자동차 수요가 큰 지역이며 친환경차 비중이 40%에 육박할 정도로 변화가 빠른 국가다.



아이오닉5



/현대차 EV9

다. 이는 전년 동기보다 17% 늘어난 것으로 반기 기준으로 가장 많은 판매량이다. 특히 전기차 판매량은 같은 기간 60.9% 증가한 6만 1883대로 친환경차종 중 유일하게 성장세를 보였다.

현대차·기아는 상반기 미국에서 친환경차를 포함해 총 81만 7804대를 판매했다. 전년 동기보다 0.3% 줄었지만 제너럴모터스, 토요타, 포드 다음으로 4위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5위인 스텔란티스(68만 1532대)보다는 13만 대 넘게 앞서고 있다. 현대차는 43만 1344대, 기아는 38만 6460대를 각각 기록했다.

현대차그룹은 오는 4분기 미국 조지아주에 신공장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의 준공과 함께 현지 시장 공략에 속도를 높일 전망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불확실한 경영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 현지 수요와 정책에 적합한 생산·판매 체계를 강화하고 권역별 시장 변화에 지속적으로 탄력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튜브 영상 제공

ysw@metroseoul.co.kr

점유율은 3년 연속 10%대(2022년 11.25%, 2023년 10.31%, 올해 상반기 10.66%) 영국 내 신차 10대 중 1대꼴로 현대차그룹 차량이 판매되고 있는 셈이다. 브랜드별 성적도 괄목할 만하다. 올해 상반기 현대차는 9위, 기아 4위, 제네시스는 39위를 각각 기록했다. 현대차그룹은 올 하반기 아이오닉5N을 비롯해 친환경 라인업을 확대하며 판매량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현대차그룹은 인도 시장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현대차·기아는 올 상반기 인도 시장에서 역대 최대 판매 실적을 갈아치웠

다. 지난해 현대차(59만5000대)와 기아(25만5000)의 판매량을 넘어설지도 관심사다.

올 상반기 현대차는 인도에서 27만 2207대를 판매하며 전년 동기(26만 6760대) 대비 2% 증가세를 기록했다. 시장 점유율은 13.8%로 2위다. 기아도 같은 기간 11만 2844대를 판매하며 전년 동기 대비 0.8% 감소했지만 나뭇은 크지 않았다. 시장 점유율은 5.7%로 마루티 스즈키에 이어 현대차, 타타모터스, 토요타에 이어 5위를 차지했다. 4위 토요타(5.8%)와는 0.1% 차이에 불과하다. 현대차는 인도 현지 생산량을 확대

하며 점유율 확대에 드라이브를 건다. 기존 첸나이 1·2공장에 2022년 GM으로부터 인수한 푸네 공장(탈레가온 공장)을 재정비해 연간 100만 대 생산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여기에 기아의 생산 능력을 합산하면 연 150만대 생산이 가능해 연간 170만 대의 자동차를 판매하는 마루티 스즈키의 점유율을 바짝 추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대 완성차 시장인 북미에서는 친환경차를 앞세워 판매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다.

현대차·기아는 올 상반기 미국에서 총 15만 5702대의 친환경차를 판매했



HD현대삼호가 10일 전남 영암에 위치한 HD현대삼호 아드에서 제2돌핀안벽 준공식을 진행했다. (왼쪽 세번째부터) 명창환 전남부지사, 권오갑 HD현대 회장, 박홍률 목포시장, 우승희 영암군수 등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HD현대

## HD현대삼호, '제2돌핀안벽' 준공

권오갑 회장 "친환경 선박 건조 극대화" 좌우로 선박이 접안할 수 있어 안벽의 효율성을 극대화한다.

HD현대의 조선 부문 계열사인 HD현대삼호가 고부가가치 친환경 선박 발주 증가에 맞춰 선박 접안(接岸)시설을 확충했다.

HD현대삼호는 10일 '제2돌핀안벽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돌핀 안벽은 육지에 인접한 바다에 튼튼한 기둥 모양의 구조물을 설치하여 연결한 돌출형 시설이다. 일반 안벽과 비교해

이번에 준공된 돌핀안벽은 연결도로를 포함한 총연장 530m 규모로 선박 건조작업을 지원하는 대형 크레인 2기가 장착되어 있으며, 안벽 좌우로 2척씩 총 4척의 초대형 선박을 접안시킬 수 있다.

이날 준공식에 참석한 권오갑 회장은 "고부가가치 친환경 선박 건조를 극대화해 서남권의 핵심 기업으로 지속 성장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 한화에어로, 1.4兆 '자주포패키지' 수출

루마니아 국방부 공급 계약  
보병전투장갑차 사업 도전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루마니아와 K9 자주포 54문 등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K9은 한국군을 포함한 전세계 10개국 사용 중인 베스트셀러 자주포의 입지를 굳히게 됐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 9일 루마니아 국방부와 부쿠레슈티 현지에서 1조 3828억원 규모의 자주포 등을 공급하는 계약을 맺었다고 10일 밝혔다. 현지업체와 협력해 K9 자주포 54문과 K10 탄약운반차 36대 등을 2027년부터 순차 납품할 예정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독일의 PzH 2000, 튀르키예의 퍼티나(Firtina) 자주포 등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경쟁 제품을 제치고 이번 사업을 획득했다.

4개월 동안의 경쟁 끝에 올해 초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된 뒤 루마니아 정부와 세부 협상을 진행했다.

이번 계약에는 K9과 K10 외에도 정



루마니아와 공급 계약을 맺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K9 자주포(오른쪽)와 K10 탄약운반차의 모습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찰·기상 관측용 차륜형 장비, 탄약 등 '자주포 패키지'가 포함되면서 루마니아에 방산 토탈 솔루션을 제시한 것이 최종 계약을 이끌었다.

앞서 정부는 양국 정상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를 위한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방산군수공동위원회를 최초로 개최하는 등 방산 수출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에 나섰다.

루마니아의 10번째 운용국 합류로 K9(K10 포함)의 누적 수출 총액은 13조

원을 돌파하고 NATO 회원국 중 K9 자주포를 도입한 국가는 6개국까지 확대됐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루마니아 보병전투장갑차(IFV) 사업에도 도전할 계획이다.

독일, 영국 등 글로벌 방산기업들이 뛰어들어 사업에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혹독한 테스트를 견뎌 호수군의 최종선택을 받은 레드백 장갑차를 앞세울 계획이다. /양성운 기자

## 현대로템-PGZ, K2PL 컨소시엄 연장

(폴란드형 K2 전차)

내년까지 K2전차 180대 납품 예정

현대로템이 폴란드형 K2 전차(K2PL) 본 계약을 위한 신규 합의를 체결했다.

현대로템은 지난 9일(현지시간) 폴란드 국영방산그룹 PGZ와 폴란드형 K2 전차(K2PL) 생산·납품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신규 컨소시엄 합의를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신규 합의서 체결은 기존 컨소시엄 계약 시한이 지난달 만료되면서 컨소시엄 계약을 연장하고, K2PL 2차

이행계약 연내 체결을 위해 컨소시엄간 협력을 가속화하기 위한 조치다.

K2PL 컨소시엄은 2022년 7월 현대로템과 폴란드 군비청이 맺은 총괄계약 내용을 기반으로 폴란드 현지 K2PL 전차 생산 역량 구축 및 적기 납품을 위한 협력 관계를 규정하고 있다.

현대로템은 올해 상반기까지 총 46대의 폴란드 K2 전차(K2GF)를 조기 및 적기에 납품했으며, 앞으로 올해 하반기 38대, 내년에 96대 등 총 180대를 납품한다. /양성운 기자

## 두산에너지빌리티, 안동복합발전소 가스터빈 공급

계약기간 10년...안정적 매출 확보

에너지빌리티가 지난 1월 한국남부발전과 공급계약을 체결한 380MW(메가와트)급 제품이다.

안동복합발전소 2호기는 경북 안동시 풍산읍 지역에 569MW 규모로 2027년 3월 준공될 예정이다. 이번 계약에 따라 두산에너지빌리티는 자사가 공급한 가스터빈에 대한 ▲고온부품 공급 및 재생정비 ▲계획정비 ▲두산 가스터빈 맞춤형 디지털 솔루션 적용 ▲성능 및

정비일정 보증 등을 수행한다. 계약기간은 준공 이후 10년이다.

가스터빈 장기유지보수 서비스는 가스터빈에 대한 고도의 종합적 역량이 요구돼 그동안 주로 해외 가스터빈 원제작사들이 독점해왔다. 이번 계약으로 두산에너지빌리티는 가스터빈 원제작사로서 지위를 공고히 하는 것은 물론 장기 안정적 매출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차현정 기자 hyeon@



# ‘중·대형 배터리’ 기술개발 집중 차별화 솔루션으로 경쟁력 강화

국내 배터리 업계가 중·대형 배터리에 기술 개발에 집중하며 수익성을 확보하는데 매진 중이다. 소형전지보다는 대형전지로 돈을 번다는 전략을 펼친 것이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배터리 사들이 중·대형 배터리 분야에 투자를 강화하고 있다. 이에 각사는 개발 철학과 전략에 따라서 원형·각형·파우치 등 셀 형태에 따른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중·대형 배터리는 전기차 및 전력용 에너지저장장치(ESS)에 탑재된다.

특히 삼성SDI는 전기차 수요 둔화에도 불구하고 중·대형 배터리 제품 부문 수익성을 통해 견조한 실적을 이어가고 있다. 1분기 사업부별 실적을 보면 전기 부문 매출은 4조581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 감소했다. 영업이익률은 4.7%다.

프리미엄 차량에 탑재되는 5세대 각형 배터리 ‘P5’의 견조한 판매와 미주향 ‘P6’의 공급 개시 등 고부가 제품 판매 확대 및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AMPC) 수익 인식 영향으로 전년 동기 대비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증가한 것이다. 지난해 4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는 주력 헝가리 공장 가동률이 90%를 유지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는 소형전지 가동률을 훨씬 웃도는 수준이다.

삼성SDI는 올해에도 중대형전지에 투자를 집중할 전망이다. 삼성SDI는 미국 인디애나주에 스틸란티스와 합작공장을 건설 중이며, 스틸란티스 합작 2공장도 제너럴모터스(GM) 합작공장 건설도 예정돼 있다. 투자규모는 5~6조원대의 이를 것으로 전망한다.

작년 (CAPEX)은 4조3447억원이었다. 앞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삼성SDI 연구소 전경.

/삼성SDI

**韓 배터리업계, 수익성 확보 전략**  
삼성SDI, 중대형 배터리로 견조 실적  
5~6조 규모 합작공장도 건설 예정  
LG엔솔, LFP 롱셀 기반 ESS 신제품  
편의성·화재방지 적용 안정성 강화

**SK온, GV90 배터리 공급 흑자 기대**  
울산공장·메타플랜트 아메리카 공급

이 올해 첫 해외 현장경영으로 삼성SDI 말레이시아 사업장을 찾아 ‘담대한 투자’를 주문한 만큼 대규모 투자 증액이 있을 것이라 전망이 나온다.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 6월 인터배터리 유럽에서 LFP 롱셀 기반 전력망 ESS 신제품을 선보였다. 특히 고용량 LFP 롱셀 ‘JF2 셀’을 활용한 신제품 ‘New Modularized Solutions’을 공개해 주목받았다.

해당 제품은 모듈형 컨테이너 타입으로 용도에 맞게 용량을 구성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모두 조립된 완성형으로 고객에게 전달돼 편의성을 한층 높였으며, 화재 방지 솔루션을 적용해 제품의 안전성도 한층 강화했다.

SK온은 파우치형 니켈·코발트·망간(NCM) 배터리를 제네시스의 첫 대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GV90 공급하며 흑자 전환을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SK온의 GV90용 배터리는 현대차 울산 공장과 오는 4분기 가동할 예정인 미국 조지아주 전기차·하이브리드카 공장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에 공급할 예정이다. 앞서 회사는 포드와 총 연 127GWh(기가와트시) 규모의 합작 공장 건설 계획에 차질을 빚으며 큰 타격을 입은 바 있다. GV90에 배터리를 공급하는 것을 계기로 현대차와의 동맹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배터리 기술이 상향 평준화돼 가격 경쟁력만으로는 더 이상 차별화를 이루기 어렵다”라며 “시스템 단위의 차별화된 배터리 솔루션을 선제적으로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 삼남석화 친환경 소재 경쟁력 확보

삼남석유화학이 국내 TPA(Terephthalic Acid, 테레프탈산) 생산업체 중 처음으로 국제 친환경 인증 ‘ISCC PLUS’를 획득하며 ESG 경영에 앞장서고 있다.

삼남그룹의 화학 계열사 삼남석유화학은 TPA 중 국내에서 유일하게 생산하는 QTA(Qualified Terephthalic Acid)가 ‘ISCC(International Sustainability & Carbon Certification) PLUS’ 인증을 최근 획득했다고 10일 밝혔다.

ISCC는 석유화학 원료를 배제하고 친환경 바이오 원료나 다양한 분야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및 잔류물을 재활용해 생산한 제품과 유럽연합(EU)의 신재생에너지 지침(RED II, Renewable Energy Directives)에 부합하는 연료에 대해 인증을 부여하는 국제 인증제도이다.

/차현정 기자

## 현대차, ‘현대셀렉션’ 리뉴얼 앱 출시

앱 인터페이스·구독 요금제 개편

현대자동차가 모빌리티 구독 플랫폼 ‘현대셀렉션’을 전면 개편해 출시한다고 10일 밝혔다.

현대셀렉션은 고객이 모바일 앱에서 현대차의 다양한 차량을 일 단위 또는 월 단위로 원하는 만큼 대여할 수 있는 서비스다.

현대차는 이번 리뉴얼 앱 출시를 통해 기존 대비 대여 가능한 차종 및 트림을 늘리고 앱 인터페이스와 구독 요금제를 전면 개편했다. 아이오닉5 N, 디올뉴 싼타페, 더뉴 투싼을 신규 추가해 총 20개 차종을 운영하고 차종당 1개씩 운영하던 트림을 최대 4개까지 늘렸다.

고객이 원하는 차량을 빠르게 찾을 수 있는 필터 기능과 이용 목적에 맞는 차종을 제안하는 추천 차량 기능도 추가했다.



‘현대셀렉션’ 리뉴얼 앱 출시.

경차, 소형차, 준중형차 등 차급 단위로 책정되던 기존 구독요금은 고객이 대여하는 차종 및 트림 단위로 책정되도록 개편했다.

기존에 적용만 가능했던 블루멤버스 포인트로 구독료를 결제할 수 있다. 현대차그룹의 간편결제 서비스인 현대 페이도 사용할 수 있다.

/양성운 기자 ysw@

# 미래에너지 성장전략 모색 “비즈니스 실행력 높일 것”

**SK이노베이션 美 글로벌포럼 개최**  
배터리·핵심 사업 등 성장전략 논의  
미래 에너지 선도 글로벌 인재 발굴

SK이노베이션이 글로벌 에너지 전문가들과 만나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나선다.

SK이노베이션은 오는 1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에서 ‘SK이노베이션 글로벌포럼’을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회사는 지난 2021년부터 SK이노베이션 계열 전략 실행에 힘을 더해줄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대하고자 글로벌 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이를 통해 SK이노베이션은 해외 우수 인재와 교류하고 협력하면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구체적으로 올해 포럼에서는 ▲이차전지 ▲배터리 열폭주 방지 기술 ▲지질 산업 및 기술(Geo Biz & Tech) ▲탄소 소재(Carbon Materials) ▲오픈이노베이션(Open Innovation) 등 5개 세션을 열고 미래 에너지 전략과 배터리 기술 발전 방향에 대한 논의한다. 각 세션은 논의 방향성에 초점을 맞춰 그룹토의, 전문가 주제발표 등 각기 다양한 형태로 운영된다.



2023년 글로벌포럼에 참석한 패널들이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뉴스시스

SK이노베이션은 이 자리에서 미래 에너지 사업을 선도할 글로벌 인재도 직접 발굴할 예정이다. 지난 2023년 시행한 글로벌포럼에서 SK이노베이션은 글로벌 에너지 기업 재직자, 우수 대학 석학 등 우수한 인재 풀을 확보해 네트워킹을 이어가고 있다.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SK이노베이션 글로벌 포럼은 글로벌 에너지 산업 동향과 기술을 공유하는 대표 네트워킹 플랫폼으로 자리잡고 있다”며 “포럼의 노하우와 성과를 축적해 배터리, 해외자원개발 등 SK이노베이션 계열 핵심 비즈니스의 실행력을 높여 나갈 것”이라 말했다.

/차현정 기자

## LGU+, 해저케이블 육양국에 DX 솔루션

지능형 CCTV·진동센서 등 4종 적용

LG유플러스는 충청남도 태안군 ‘국제 해저케이블 육양국’에 스마트 관제 DX(디지털 전환) 솔루션을 도입한다고 10일 밝혔다.

지능형 CCTV, 실시간 관제 IoT(사물인터넷), 진동센서, 통합관제 모니터링 등 DX 관제 솔루션 4종을 육양국에 적용해 운영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DX 솔루션을 도입하는 태안군 육양국은 현재 LG유플러스 자회사인 데이콤크로싱이 운영 중이다.

육양국은 해저 광케이블을 육지에 설치된 통신망과 연결이 가능하도록 교환기 등 접속설비를 갖춘 통신 국사를 의미한다. 통상적으로 육양국은 바다와 가까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통신 국사 대비 온도와 습도에 대한 세밀한 관리가 필요하다. 인접 국가 및 한반도에 일어나는 지진에도 영향을 확률이 높다.

LG유플러스는 온도·습도 등 외부 환경 변화에 신속 대응하고 외부인 침입 및 화재와 같은 위급 상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자체 보유한 ‘DX 관제 솔루션’ 도입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외부인 출입과 화재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지능형 CCTV를 육양국 내외부에 설치했다. 지능형 CCTV는 FHD 고화질로 실시간 녹화가 가능해 시설물의 상황을 선명하게 모니터링할 수 있다. 또한 사람, 동물, 그림자, 카메라 흔들림 등을 스



LG유플러스 직원이 ‘DX 관제 솔루션’을 관제하고 있다. /LG유플러스

로 구분할 수 있어 이상 상황 발생 시 조기 대응이 가능하다.

기존 수작업으로 진행하던 배전반 온도 관리, 발전기 연료 모니터링 등 시설 관리 업무도 실시간 원격 관제 IoT를 도입해 디지털 전환했다.

LG유플러스는 CCTV, IoT 기기 등 산업 현장에서 주로 사용하는 장비에도 AI 기술을 확대 적용해 공공기관 및 기업 고객사에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근로자들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안형균 LG유플러스 기업영업2그룹장(상무)은 “LG유플러스가 보유한 기술 역량을 바탕으로 국내 해저케이블 육양국의 안전과 운영 효율이 높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번 관제 솔루션 구축을 발판으로 다양한 산업 현장에 관제 솔루션을 적용, 고객의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돕고 근로자 안전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서현 기자 seoh@





## 칠레 최정상 아이콘 와인 몬테스



# 대형증권사 ‘깜짝 실적’ 기대… 중소형사는 ‘신용등급 강등’

상위 5개사 2분기 영업익 1.2兆  
전년 동기비 24.09% 증가 수치  
중소형사, 부동산PF 우려 고조  
대형사도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

1분기에 이어 2분기에 대형 증권사들의 ‘깜짝 실적’이 기대되고 있다. 반면,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 우려에서 벗어나지 못한 중소형사들은 신용등급이 강등되는 등 부진한 실적을 면치 못할 전망이다.

10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자기자본 3조원 이상 증권사 중 실적 전망치가 제시된 상위 5개사(미래에셋증권·한국투자증권(한국금융지주)·NH투자증권·삼성증권·키움증권)의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은 1조2584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1조141억원)보다 24.09% 증가한 수치다.

4월까지만 해도 해당 5개 증권사의 올해 2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는 1조358억원에 불과했다. 당초 전년 동기보다 2.13%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지만, 긍정



ChatGPT에 의해 생성된 대형 증권사와 중소형 증권사의 심화되는 양극화를 보여주는 이미지.

적인 브로커리지 수익률과 함께 영업이익 예상치도 불어난 것이다.

증권사별로는 미래에셋증권이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 지난해 2분기 영업이익은 1567억원이었으나 올해는 2328억원이 추정되면서 약 48.6%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키움증권(38.9%)과 삼성증권(31.1%)도 전년 대비 2분기 영업이익이 급증할 것으로 추정되면서 증권사들의 ‘어닝 서프라이즈(깜짝 실적)’

기대감이 오르는 상황이다.

임희연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올해 2분기 증권사들의 거래대금은 1분기 대비 2.3% 감소에 그치면서 생각보다 상당히 양호한 업황을 보여 주고 있다”며 “국내의 주식시장 호조에 힘 입어 동성 이탈이 제한적이고, 특히 해외주식거래 증가가 양호한 브로커리지 손익으로 이어질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2024년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

싱(PF) 및 해외부동산펀드 관련 불확실성은 여전히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우도형 IBK증권 연구원은 “증권사의 부동산PF 익스포저(위험노출액) 대비 대손충당금 및 준비금 적립 비중은 브릿지론 기준 17% 수준이며 브릿지론 비중에서 중후순위 비중이 40%인 점을 감안할 시 추가적립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증권사 브릿지론 중 고정이하 비중은 25% 수준이며 만기가 대부분 2024년에 도래하기 때문에 전체 증권사 충당금 적립비중은 20% 수준까지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커버리지 증권사의 국내 부동산PF 익스포저는 대체로 축소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자기자본 규모에 따른 증권사들의 양극화는 심화되고 있다. 나이스신용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수수료수익이 중투사는 22.0%, 자기자본 1~4조원 대형사는 8.2% 늘어난 반면, 중소형사는 7.0% 감소했다. 브로커리지 수익으로 실적을 만회하고 있는

대형사들과는 달리 중소형사들의 부동산PF 우려는 고조되고 있는 셈이다.

윤재성 나신평 수석연구원은 “증권사 규모별로 실적 개선 수준의 차별화가 나타났다”면서 “중소형사의 경우 브릿지론 등 고위험 부동산 PF 익스포저 중심으로 건전성 저하 여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나신평은 이달 SK증권의 단기신용등급을 ‘A2+’에서 ‘A2’로 강등했다. 더불어 다음 투자증권의 경우에는 기업신용등급, 선순위 채권 등급 등의 전망을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했다.

또한, 대형사 중에서도 하나증권의 선·후순위 채권의 등급전망은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떨어졌다. 시장에서는 신용등급 강등이 대형사로 전이할 가능성에 대해 어느 정도 존재한다고 보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가능성 자체는 적을 수 있지만 아직 부동산 관련 이슈가 끝나지 않았고, 밸류업 훈풍도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는 불확실성이 있어 지켜봐야한다”고 말했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 코스피 전망 ‘맑음’에도 인버스 상품 매집

투자자 예약금, 약 3개월 만에 최저  
코스피 최고치에도 차익 실현 추구  
증권사 “주가 상승세 지속 전망”

개인투자자들이 연중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국내 시장의 상승 흐름과는 다르게 차익실현을 추구하면서 지수가 다시 하락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코스피 하락에 베팅하고 있다.

10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4일 투자자 예약금은 53조45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3월22일 이후 3개월 반 만에 최저치다. 투자자 예약금은 투자자가 주식을 사려고 증권사 계좌에 맡겨두거나 주식을 매도한 뒤 찾지 않은 돈으로 주식 시장에서 ‘대기성 자금’으로 불린다. 투자자예약금 감소는 그만큼 시장 관심도가 떨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개인투자자들은 이달에 코스피 시장에서 3조7598억원어치 팔아치웠다. 이달 들어 코스피가 2800선을 뚫고 2900선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으나 개인 투자자들은 이 같은 상승세가 일시



10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하고 있다. 코스피는 전 거래일(2867.38)보다 0.61포인트(0.02%) 오른 2867.99에, 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860.42)보다 1.87포인트(0.22%) 하락한 858.55에 거래를 종료했다. /뉴시스

적인 현상으로 보고 차익 실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국내 주식 매도를 통해 마련한 자금 중 일부는 미국 증시로 유입됐다. 지난 9일까지 국내 투자자들

은 1억9040만달러(약 2637억원)어치의 미국 주식을 사들였다.

특히 개인투자자들은 코스피 하락을 점치며 인버스 상품을 매집했다. 이달 코스피200 선물지수를 반대로 2배 추종하는 ‘KODEX 200선물인버스 2X’를 1974억원어치 매수한데 이어 코스피 하락으로 수익을 보는 ‘KODEX 인버스’도 328억원어치 순매수했다. 이와 달리 지수 상승에 베팅하는 KODEX 코스닥 150레버리지ETF(1788억원), KODEX 레버리지(1086억원), KODEX 200(251억원) 등은 순매도했다.

이 같은 개인투자자들의 투자 형태와는 달리 증권사들은 코스피 지수에 대해 밝은 전망을 내놓고 있다. 기업의 호실적과 금리인하 기대감이 맞물리면서 주가 상승세가 계속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실제로 BNK투자증권, 대신증권 등은 하반기 코스피 상단을 3200까지 제시했으며, 삼성증권과 메리츠증권은 3150, NH투자증권과 하나증권은 3100선까지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원관희 기자 wkh@

## 올해 상반기 펀드 순자산 98.1兆 늘어

금투협 ‘상반기 펀드시장 동향’  
주식형·채권형 펀드 성장 영향

올해 상반기 펀드 순자산 총액이 98조원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통자산 펀드를 중심으로 자산이 유입된 영향이다.

10일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발표한 ‘2024년 상반기 펀드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전체 펀드 순자산은 1069조5000억원으로 지난해 말 대비 98조1000억원 증가했다.

전통자산에 투자하는 주식형(18조6000억원)과 채권형(18조7000억원) 펀드의 성장이 두드러진 영향으로 분석된다. 특히 해외주식형 펀드에 7조9000억원의 자금이 순유입되며, 순자산총액은 전년 말보다 39.4% 늘어난 56조7000억원을 기록했다. 금투협 관계자는 “인공

지능(AI) 열풍 속 반도체 관련주의 가치가 크게 올랐으며, 팬데믹 이후 글로벌 경기가 비교적 연착륙하고 있어 투자심리가 견조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내채권에 투자하는 펀드에는 14조4000억원이 순유입되며, 순자산총액은 전년 말 대비 17조3000억원(13.1%) 증가한 149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글로벌 디스인플레이션에 따라 국내 금리도 인하할 것이라는 전망이 확대된 데 기인한다.

주식형·채권형 공모펀드는 ‘2020년 말 대비 순자산총액이 각각 35조4000억원(49.0%), 24조7000억원(74.1%) 성장했다. 하지만 ETF를 제외하면 주식형 공모펀드는 2조원(5.0%) 감소했고, 채권형 공모펀드는 1조3000억원(5.0%)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다. /원관희 기자

## 대목 맞은 게임株, 반등 기대감 ‘솔솔’

대어 IPO, 방학, 신작 등 호재 연이어

장기간 부침을 겪던 게임주가 하반기 신작 발표와 ‘소프트업’의 코스피 상장으로 주가 반등의 기회를 잡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게임이 ‘여름방학 수혜주’로 꼽혀 게임주에 대한 투자심리도 회복되면서 게임사들의 주가도 상승하는 모습이다.

1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KRX 게임 TOP 10 지수’는 지난해 동기보다

63.12나 오른 678.26을 기록했다. 올 들어 가장 높았던 종가인 696.25보다는 낮은 수치지만 이번 달 10거래일 동안에는 이틀만 소폭 하락하고 완만한 상승세를 유지했다. ‘KRX 게임 TOP 10 지수’는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상장종목 중 게임 산업군 내 대표기업 10개 종목을 구성종목으로 하는 지수다.

게임 업종은 지난해 10월 4일 바닥(516.45)을 찍고 점차 회복세에 접어들었다. 증권가에서도 하반기부터 신작 계

임이 나오고 ‘하반기 IPO대어’로 꼽히는 소프트업이 상장하면 업황 회복이 예상된다. 또한 이용시간이 급증하는 여름 방학과 휴가철에 힘입어 ‘여름 수혜주’로도 분류되고 있다.

이 밖에도 올해 하반기 게임사별로 다양한 신작들이 출시를 앞두고 있는 점도 호재다. 올 상반기 ‘나 혼자만 레벨업: 어라이즈’로 상승세를 탄 넷마블은 ‘일곱 개의 대죄 키우기’, ‘킹 아서: 레전드 라이즈’ 등 다수의 게임 출시를 예고했고 위메이드, 네오위즈, 크래프톤 등도 하반기 신작 발표 대열에 합류할 예정이다. /허정운 기자 zelkova@

## 미술품·한우 등 조각투자 모범규준 제시

투자계약증권 신고서 작성 시 참고

‘조각투자 산업’이 미술품에서 한우로 범위가 확장되고 있는 가운데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발행자들이 반드시 금융당국에 신고해야 할 내용을 담은 모범 규준이 나왔다.

금융감독원은 조각투자업자가 투자계약증권 신고서를 작성할 때 참고할 수 있는 ‘투자계약증권 투자자 보호 모범규준’을 만들었다고 10일 밝혔다.

‘조각투자’는 미술품·부동산·음악저작권·한우 등, 유·무형의 투자 대상 자산을 여러 지분으로 쪼개 불특정 다수가 투자할 수 있도록 증권화한 것을 뜻한다. 지난해 12월 투자계약증권 증권신고서의 최초 효력이 발생된 이래 지금까지

총 7건(72억7000만원 규모) 투자계약증권이 발행됐거나 발행될 예정이다.

그간 조각투자는 기초자산을 보관하거나 청약 및 배정하는 절차 등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 투자자 보호 장치가 부실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실무에선 조각투자 사업자가 신고할 때 신고서 정정을 반복하고 발행일정이 지연되는 일도 발생했다. 금감원은 이를 시정하기 위해 모범규준을 마련했으며, 이는 지난 2022년 4월 발표된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을 구체화한 투자계약증권 투자자 보호의 모범 사례집이다. ▲기초자산 ▲내부통제 ▲청약·배정 ▲투자자 권리 보호 등 중요 항목별 원칙, 세부 사항뿐만 아니라 구체적 작성 예시를 제공한다. /허정운 기자



# 노동계 1만1200원 vs 경영계 9870원... '1330원' 공방 시작

## 최저임금 첫 수정안

노동계 1만2600원서 1400원 낮춰  
“단신 노동자 생계비 월 245만원  
최저임금 노동자 실질임금 높여야”

경영계 최초 ‘동결’서 10원 올려  
“영세 중소기업 지불능력 고려해야”



최저임금위원회 류기정 사용자 위원과 류기섭 근로자 위원이 지난 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9차 전원회의서 서로 다른곳을 바라보고 있다. /뉴스시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노사 양측의 본격적인 줄다리기가 시작됐다. 지난 9일 열린 9차 최저임금위원회 예선 노사 양측이 시급 기준 최초 제시안을 내놓은 뒤 1차 수정안이 나왔다. 노동계는 올해보다 13.6%(1340원) 인상한 1만1200원을, 경영계는 0.1% (10원) 인상한 9870원을 제시해 1330원 차이로 좁혀진 상태다.

다만, 노사 양측의 입장차가 팽팽해 노사 합의안이 나올 수 있을지 미지수다.

노동계는 급격히 오르는 물가에 근로자 실질임금이 하락했다며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계를 고려해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근로자위원측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지난 9차 전원회의에서 “올해 최저임금위원회가 제공한 심의자료만 보더라도 비혼 단신 노동자의 생계비는 월 245만원이 넘게 필요하다”며 “하지만 현재 최저임금은 이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며 노동자 실질임금 저하 상황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용자위원측은 최저임금 제도 시행 이후 17번의 동결안과 3번의 삭감안을 제시했다”며 “현실적인 인상을 제시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2022년 생활물가 상승률이 6%에 달했지만, 최저임금은 5% 인상에 그쳤다. 2023년엔 생활물가가 3.9% 올랐지만, 최저임금은 2.5% 인상됐다”며 “모든 지

표가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고 인상을 주장했다.

경영계는 올해도 최초 요구안으로 ‘동결’을 내놓았다가 위원장의 요구에 0.1% 인상한 수정안을 제시한 상태다. 경영계는 그간 최저임금 인상이 컸고,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임금 지불능력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일반적으로 최저임금이 부작용 없이 운영되기 위한 적정 수준의 상황은 중위임금의 60%라고 하는데 우리 최저임금은 중위임금의 65.8%로 이미 적정수준을 넘어섰다”며 “최저임금 수준을 과도하게 높여 어려운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좌절과 고통을 줘선 안된다”고 말했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우리 사회에서 저임금 근로자보다 더 취약계층인 은퇴 고령자, 미숙련 청년, 경력단절 여성 등 노동시장 외 부자도 고려해야 한다”며 “취약층 구직

자들의 고용기회 확대를 위해 최저임금은 동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영계는 특히 올해 최임위 최대 쟁점이었던 최저임금 구분 적용 무산에 반발해 한계업종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류 전무는 “구분적용이 부결됨에 따라 모든 사업장이 동일하게 지켜야 하는 단일한 최저임금을 정해야 한다”며 “이런 만큼 현 수준에서 이 조차 감당 못하는 한계업종을 기준으로 수준이 결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임위는 11일 오후 10차 전원회의를 열어 추가적인 수정안을 제시해 간격을 좁히게 된다. 다만, 최종 노사 합의가 불발되면, 노사 양측과 공익위원이 참여하는 표결로 내년 최저임금을 정하게 된다. 지난해 최임위에서는 노사 합의 실패로 표결을 진행한 결과 경영계 제시안으로 결정된 바 있다.

최저임금 법정 고시일(8월5일)을 감안하면 늦어도 내주 중 최저임금이 결정될 전망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 29세 이하 청년취업자 20개월째 뒷걸음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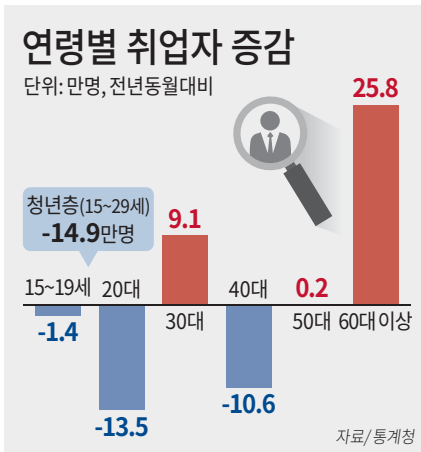
### 통계청, 6월 고용동향

취업자 증가폭 두달째 10만명 밑돌아  
60세 이상, 30·50대 취업자수 증가  
20대 13.5만명, 40대 10.6만명 감소

취업자 수 증가폭이 두 달째 10만 명을 밑돌았다. 지난달 취업자는 전년동월 대비 9만6000명 늘어나는데 그쳤다. 또 29세 이하 청년취업자는 20개월 연속으로 감소세를 이어 갔다.

통계청이 10일 발표한 ‘2024년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890만7000명으로 1년 전보다 9만6000명 증가했다. 그러나 올해 1월(+38만명), 2월(+32만9000명), 3월(+17만3000명), 4월(+26만1000명) 등과 비교해 증가폭이 크게 둔화했다. 5월(8만명)에 이어 2개월 연속으로 +10만 선을 하회한 것이다.

60세 이상 취업자는 25만8000명 늘어났다. 30대와 50대에서도 각각 9만1000명, 2만명 늘었다. 반면, 20대 및 40대 취업자는 각각 13만5000명, 10만6000명 감소했다. 청년층을 가리키는 15~29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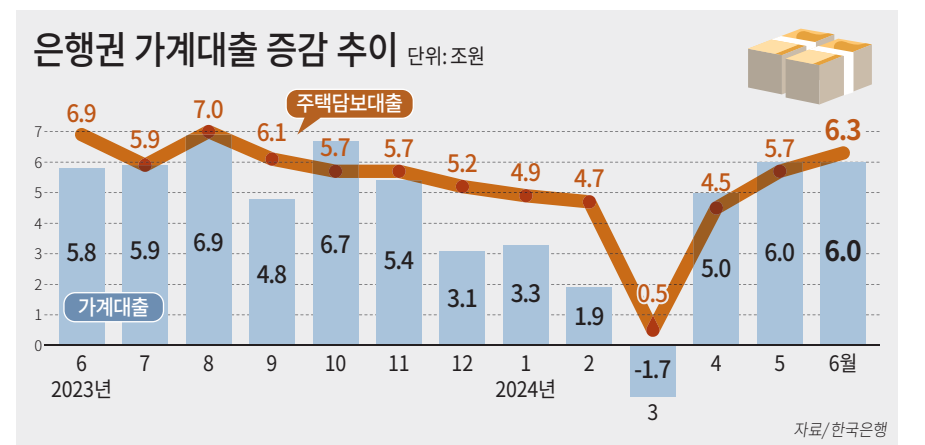
취업자 역시 1년 전보다 14만9000명 줄어 들며 20개월째 뒷걸음질했다.

업종별로, 제조업 분야 취업자 수가 전년동월 대비 9000명(0.2%) 증가했다. 제조업 취업자는 7개월째 증가 추세를 보였다. 금융 및 보험업이 2만명(2.5%) 늘었고 농림어업은 3만3000명(-2.0%) 줄었다.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12만명, 4.2%)과 정보통신업(7만5000명, 7.2%) 등에서 증가했지만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6만2000명, -4.3%), 교육서

비스업(-6만3000명, -3.2%), 도매 및 소매업(-5만1000명, -1.6%) 등에서는 감소했다.

지난달 실업자 수는 85만7000명으로 전년보다 5만명(6.2%) 늘며 지난해 11월부터 8개월 연속 증가세를 나타냈다. 서울주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돌봄 수요 증가 등 영향으로 취업자 증가세가 지속됐지만, 실업자·비경제활동인구도 증가하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취업자도 실업자도 아닌 비경제활동인구는 1578만6000명으로 2만1000명(0.1%) 늘었다. 비경제활동인구 중 연령계층별 ‘쉬었음’ 인구는 40대(3만2000명, 13.7%)가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20대(3만8000명, 10.6%)와 50대(3만명, 8.8%) 등도 증가했으나 60세 이상(-1000명, -0.1%)에서는 감소했다. 서 국장은 “비경제활동인구는 40개월 만에 증가로 전환했다”며 “통상적으로 60세 이상에서 증가해왔는데 최근 50대가 플러스 전환됐고 지난달은 50대 여성 쪽에서 비경제인구 전환이 두드러졌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 다시 ‘영끌’ 바람?... 주담대 6.3조 증가

한은, 상반기 누적 주담대 26.5조 ↑  
주택거래 늘고 대출금리 하락 영향  
신용대출 포함 기타대출 3000억 ↓

지난달 은행의 가계대출이 6조원 증가했다.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대출은 3000억원 감소한 반면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6조3000억원 증가한 영향이다.

상반기 누적 기준으로 주담대는 26조5000억원 증가했다. 지난 2021년 상반기 30조4000억원 증가 이후 3년 만에 최대폭이다. 최근 수도권 중심으로 주택매매거래가 늘고 있어 시차를 두고 주담대 증가폭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예금은 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달보다 6조원 증가한 1115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들어 가계대출이 가장 많이 증가한 5월(6조원) 이후 두번째다.

가계대출 종류별로 살펴보면 전세자금을 포함한 주담대(876조9000억원)는 6조3000억원 늘었다.

원지환 금융시장국 시장총괄팀 차장은 “주택거래가 늘고 대출금리가 하락하며 주담대 증가폭이 확대됐다”며 “정책대출 공급도 증가하면서 대출 증가폭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올해 수도권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1월 1만2000호에서 3월 1만7000호, 5월 1만8000호 거래됐다. 주담대는 주택거래 이후 시차를 두고 반영된다. 4~5월 매매거래가 주담대 증가폭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반면 신용대출은 포함한 기타대출은 전달보다 3000억원 감소한 237조4000억원을 기록했다.

### ◆주담대, 은행 늘고 2금융권 줄고

한은은 예금은행의 주담대는 증가하고 있지만,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의 주담대가 감소해 가계대출 증가폭은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전(全) 금융권 가계대출 동향’을 보면 은행과 제2금융권을 포함한 가계대출은 한달전과 비교해 4조4000억원 증가했다. 전달 증가폭(5조3000억원)보다 줄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전 금융권 주담대는 한달전과 비교해 6조1000억원 증가했다. 2금융권을 중심으로 주담대는 2000억원 감소했지만 은행권을 중심으로 6조3000억원 증가한 영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택거래 회복세에 따라 은행을 중심으로 주담대 증가폭이 확대됐다”며 “주도 디딤돌, 버팀목 등 정책성 대출 증가세가 지속됐다”고 말했다. /내유리 기자 yul115@

## 소공연 “청탁금지법 한도상향 적극 지지”

국민의힘, 식사비 3만원→5만원  
농축수산물 15만원→30만원 제안

소상공인들은 국민의힘이 정부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한도 상향을 제안한 것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냈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은 10일 논평을 통해 “청탁금지법 한도 상향을 적극 지지하고 환영한다”고 밝혔다.

지난 9일 주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는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청탁금지법이 규제하는 식사비는 기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농축수산물은 15만원에서 20만원 내지 30만원으로 상향할 것을 제안했다.

소공연은 “경기침체와 물가인상에 따른 민생 경제의 어려움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청탁금지법 규정이 물가와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며 “한도 상향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고 말했다.

또 최저임금과 관련해 소상공인의 고통을 설명했다. 현재 최저임금 심의는 진행 중이며 지난 9일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1만1200원을, 경영계는 9870원을 제시했다.

소공연은 “2016년 청탁금지법 시행 당시 6030원이던 최저임금은 올해 9860원으로 63.5%가 인상됐다”며 “몇 년 사이 원재료비 상승, 공공요금 급등 등 수많은 가격 인상 요인이 발생했으나 법 규정이 이를 반영하지 못하면서 소비는 위축되고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심화됐다”고 설명했다.

/김승호 기자 bada@



(LG전자 대표이사 사장)

# 조주완 “차별화된 고객경험 제공” 글로벌 AI·디지털 서비스 점검나서

한국·해외 고객접점 서비스 점검 AI 해외 다국어 응대 시스템 구축 글로벌 상담센터 ‘호크아이’ 확인

조주완 LG전자 대표이사 사장이 AI·디지털을 통해 고도화된 글로벌 고객 서비스 시스템 현황을 점검했다.

LG전자는 지난 9일 조 사장이 서울 강서구 마곡 LG사이언스파크에서 한국 및 해외의 고객접점 서비스 시스템을 집중 점검했다고 10일 밝혔다.

조 사장은 “AI와 디지털을 통해 고객접점을 지속적으로 혁신하며 글로벌 고객에게 LG전자만의 차별화된 서비스 경험을 제공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서비스 품질의 지속적인 제고를 위해 구축한 조직적인 통합 지원 체계와 디지털전환(DX) 성과를 꼼꼼히 들여다봤다. 지난 2021년 본격 도입한 실시간 고객 상황 관리 시스템 G-CAS가 대표적인 예다.

G-CAS는 고객과 서비스매니저의 실시간 위치를 파악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교통 상황으로 서비스매니저가 약속한 시간에 도착하지 못하는 경우 가장 근접해 있는 매니저를 대신 배치하거나, 제품 수리 중 부품 수급이 필요한 경우 해당 부품을 가진 인근 매니저가 즉시 지원하는 식이다.

LG전자는 또 구매·상담·서비스 등 고객 이력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에 최근 스마트홈 플랫폼 LG 씽큐(ThinQ)의 다양한 데이터를 접목해 기반한 효율적인 상담 및 원격 진단·조치



조주완 LG전자 CEO가 지난 9일 서울 강서구 마곡 LG사이언스파크 해외서비스 종합상황실에서 50여개 해외 법인의 서비스 운영 지표를 점검하고 있다. /LG전자

를 시행 중이다.

이외에 제품을 분해하지 않고도 사용 정보를 통해 고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LG 스마트 체크’, 무인상담 서비스 ‘AI 챗봇’ 등도 갖췄다.

해외를 대상으로도 해외 서비스 종합 상황실을 구축, 50여개 법인의 서비스 운영 지표를 실시간 관리하고 있다. 글로벌 가전 기업으로서 해외에도 지역 편차 없는 수준 높은 서비스 경험을 제공하겠다는 목표다.

조 사장은 50여개 해외 법인 산하 60여개 상담센터 운영 지표를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글로벌 상담센터 통합 상황실도 점검했다.

특히 글로벌 고객의 불편 사항을 빠르게 파악해 대응하는 ‘호크아이’ 활용 현황을 꼼꼼히 확인했다. 호크아이는 상담 데이터나 온라인 트렌드를 모니터링, 선제적으로 고객 불편점을 찾고 개선하는 시스템이다.

해외에서는 AI 상담 인프라를 이용해 언어와 지역, 시간의 경계 없는 24시

간 다국어 응대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60여개 언어를 실시간으로 번역해 고객이 원하는 정보를 고객의 언어로 전달한다. 우선 유럽 지역에서 통합 챗봇을 운영하며 중장기 무인상담률을 50%까지 늘릴 계획이다.

조 사장은 “방대한 데이터에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해 고객에게 유의미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지표를 찾아야 한다”며 “세계 곳곳의 고객들에게 더욱 수준 높은 서비스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DX 활동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조 사장은 서비스 시스템 현장 점검 후 27년 간 외진 섬마을을 돌며 가전 수리를 담당하던 목포센터 서요신 기정 등 서비스매니저들을 만났다. 그는 “서비스는 고객이 다시 한번 LG전자를 사랑하게 만들 수 있는 소중한 골든타임”이라며 “책임감 있게 업무에 임하는 여러분이 자랑스럽다”고 격려했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 중소·소상공인 해외진출 지원 본격화

중기·롯데마트·글로벌로지스 MOU

중소벤처기업부와 롯데마트, 롯데글로벌로지스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3자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10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중소기업부는 롯데글로벌로지스에서 롯데마트, 롯데글로벌로지스와 만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현장에는 오영주 중기부 장관, 원영준 소상공인 정책실장, 강성현 롯데마트 대표이사, 강병구 글로벌로지스 대표이사, 신성주 롯데이주 상무, 추대동 중소기업유통센터 소상공인디지털본부장이 참석했다.

업무협약 주요내용은 중소기업·소상공인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한 동행축제 참여기업 등 우수 중소기업 발굴 및 정책개발 판촉·입점 지원, 정기·단기행사 개최, 상품입점 등 마케팅지원 국제운송 지원, 물류컨설팅, 해외창고 서비스 등이 골자다.

이번 협약을 통해 3자 간 상호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해외 진출시 필요한 유통·물류 인프라를 제공하기로 했다.

롯데마트는 해외영업공간을 활용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 시연·판매 등 현지화에 필요한 판촉행사 개최, 마케팅 및 컨설팅 등을 지원하며, 롯데글로벌로지스는 해외 진출에 필요한 국제

운송 서비스 할인(물류비 최대 35%, 자사기준 최저가), 상품 특성에 맞는 물류전략 수립과 비용절감 관련 컨설팅 및 필요할 경우 현지 해외창고를 통한 제품 보관·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중소기업유통센터 등을 통해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우수 중소기업들을 발굴하여 현지 재외공관을 포함한 국내·외 지원기관과 금융·법무 등 민간 채널들과 협업해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다가오는 9월 동행축제를 해외에서 개최하여 현지 유통망을 통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 판촉·홍보를 추진하는 등 참여기업들의 해외 진출의 발판을 마련할 계획이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국내에서도 인정받는 품질 좋은 우리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들이 해외로 진출할 단초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베트남에서 열릴 9월 동행축제를 시작으로, 중소기업인들의 해외 판로 개척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하였다.

한편, 롯데그룹은 그룹차원에서도 ESG경영의 일환으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실제로 롯데는 지난해 9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국내 중소기업의 현지 진출을 돕는 ‘대한민국 브랜드 엑스포 in 자카르타’를 개최하기도 했다.

/최빛나 기자 vitna@metroseoul.co.kr

## LS전선, 1조 규모 美 해저케이블 공장 건설

연면적 2만평 최대 규모 공장

LS전선의 미국 공장 건설이 본격 추진된다.

LS전선은 약 1조원을 투자해 미국 최대 규모의 해저케이블 공장을 건설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공장은 동부 버지니아주 체사피크시에 위치하며 엘리자베스강 유역 39만6700m2(약 12만평) 부지에 연면적 7만m2(약 2만평) 규모로 지어진다. 2025년 착공하여 2027년 준공 예정이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200m 규모의 전력 케이블 생산타워도 갖추게 된다.

LS전선은 미국 해저케이블 시장이 향후 10년간 연평균 30%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이를 선점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진출한다는 전략이다.

LS전선 관계자는 “미국 해상풍력발전의 대부분이 동부 해안을 따라 추진되고 있어 체사피크시는 입찰, 선적, 운반 등에 최적의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LS전선은 주정부로부터 약 4800만 달러 규모의 보조금과 세제 혜택을 받게 된다. 이로써 에너지부(DOE)의 9900만 달러의 IRA 지원을 포함해 총 1억 4700만 달러(약 2027억원) 규모의 지원을 확보했다. 이는 미국에 진출한 글로벌 전선업체 중 최대 규모다.

구분규 LS전선 대표는 “이번 투자는 전 세계적으로 급증하는 해저케이블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고, LS전선이 글로벌 선도기업으로서 입지를 공고히 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차현정 기자 hyeon@

## “中企 IT기기·솔루션 중심 DX 돕겠다”

한국후지필름BI, 창립 50주년 간담회 중소기업 DX 도입률 30% 수준 밖에 약 600명 전문 인력 활용 솔루션 제공

“디지털 전환기를 맞은 중소기업을 위해 디지털전환 솔루션을 제공해 업무 생산성을 높이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하토가이 준 한국후지필름비즈니스 이노베이션(이하 한국후지필름BI) 대표가 10일 서울 중구 CHX 라이브 오피스에서 창립 50주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새로운 50년을 위한 미래 비전을 선포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간담회는 50주년을 맞아 DX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기업을 집중 지원하며 국내 기업의 DX를 선도할 미래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한국후지필름BI는 미래 비전으로 ‘고객 행복 경험(Customer Happy Experience, CHX)’을 제시했다. CHX는 단순히 디지털화를 넘어 데이터를 기반으로 고객 제품과 서비스를 혁신해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하는 것



하토가이 준 한국후지필름비즈니스이노베이션 대표가 미래 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한국후지필름BI

을 목표로 한다.

목표 실현을 위해 한국후지필름BI는 자사 핵심 고객 타깃으로 중소기업을 꼽았다. 하토가이 준 한국후지필름BI 대표는 “국내 대다수 중소기업이 DX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인력과 예산 문제로 실행이 어렵다”면서 “아직 중소기업의 DX 도입률은 30% 수준”이라고 밝혔다.

DX는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컴퓨팅, 인공지능(AI), 로봇, 빅데이터 솔루션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기업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후지필름BI는 전국에 분포된 복합기·프린터 서비스와 약 600명의 전문 인력을 활용해 기업 맞춤형 DX 솔루션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날 기자간담회에서는 한국후지필름BI가 최근 출시한 업무 협업 플랫폼 ‘IW프로’를 포함한 다양한 DX 솔루션을 갖춘 ‘CHX 라이브 오피스’가 처음 공개됐다. IW프로는 ▲문서 및 데이터 관리 ▲인쇄 및 장비 관리 등을 제공하는 클라우드 기반 올인원 협업 플랫폼이다.

“한국의 기술력과 혁신에 대한 열정은 전 세계 기업에 영감을 주고 있다”면서 “한국은 당사가 주력하고 있는 솔루션·서비스 사업 강화에 있어 매우 중요한 시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에서 많은 기술자를 채용해 DX 솔루션 사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혜민 수습기자 hyem@

## 폭스바겐, 신형 ‘투아렉’ 사전계약 시작

3세대 부분변경... 외관·편의사항 ↑

폭스바겐코리아가 부분변경을 통해 상품성을 개선한 플래그십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신형 투아렉’의 사전계약을 시작한다고 10일 밝혔다. 다음달 국내에 공식 출시되는 신형 투아렉은 3세대 부분변경 모델로 스타일리시한 외관 디자인은 물론 첨단 안전 및 편의 사양을 추가해 더욱 강력해진 상품성을 갖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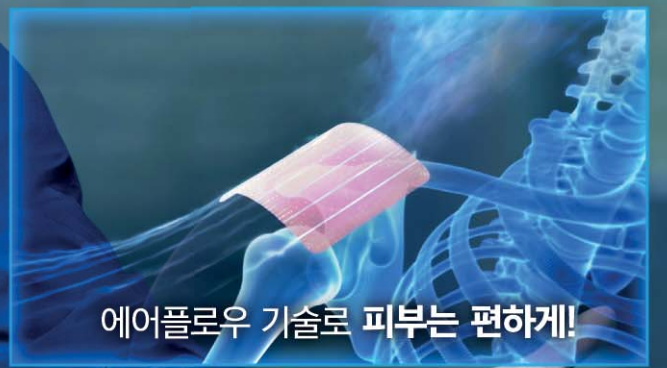
신형 투아렉의 외관은 새롭게 적용된

‘프론트 LED 라이트 스트립’과 라디에이터그릴, 블랙톤의 스포티한 디자인으로 업그레이드된 프론트 범퍼 디자인이 완벽한 조화를 이룬다. 측면부는 새로운 사이드 스커트 디자인(R-Line 적용)의 적용으로 차체의 입체감을 강조했고 후면부에는 테일게이트를 수평으로 길게 연결하는 LED 라인과 6개의 ‘L’ 자형 LED가 결합된 새로운 디자인의 LED리어 컴비네이션 램프가 적용돼 투아렉의 존재감을 더욱 부각시켜준다. /성상문 기자 ysm@



JEIL 제일헬스사이언스

# 통증엔 케펜텍으로 Tech 하세요!



케펜텍 Cool

케펜텍 HOT

케펜텍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첨부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잘 읽고, 의사·약사와 상의하십시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제품 설명서 참조 및 본사 마케팅부(서울 서초구 사평대로 343 제일헬스사이언스(주) Tel. 수신자부담 080-549-0002)로 문의 바랍니다.

광고심의필 : 2021-1584-004200



# 규제 자유특구 조속 안착 위해 기업 실증 전후기술 등 지원

KIAT 등 7곳 규제해소 지원단 출범  
특구별 민·관협의체 역할 수행  
법령 정비, 컨설팅, 투자유치 등 지원

지난 4월 지정된 9차 규제자유특구의 조속한 안착과 규제 법령 정비 지원을 위한 '규제자유특구 규제해소 지원단(이하 규제해소 지원단)'이 출범한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등 7개 기관은 서울 롯데호텔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오기웅 차관이 임석한 가운데 '규제자유특구 규제해소 지원단 운영 및 협조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는 안전성평가연구소,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한국기계전

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환경공단, 한국어촌어항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가 가스안전연구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이 참여했다.

규제해소 지원단은 규제법령 관계부처가 특구 지정 시에 부대 조건으로 요구한 '특구별 민·관협의체'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특구 내 기업들이 실증 단계에서 법령 개정과 연계되는 유효한 자료를 대거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된다. 특히, 실증 전후 기술지원, 특구 관련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법령 정비 공동 대응 등 규제자유특구를 종합 지원한다.

실증 전에는 법령 정비와 실증 데이터가 연계될 수 있도록 실증 추진 방향

컨설팅, 안전성 입증 항목 발굴 등을 지원하고, 실증 중에는 특구 사업자들의 특례 부대 조건 이행 현황 점검, 시험·인증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한다.

실증이 종료되거나 법령 정비가 완료된 특구 사업자에게는 국내외 표준·인증 획득과 투자유치, 사업화를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단장을 맡은 민병주 KIAT 원장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이나 전문 기관들과의 협업이 원활해져 시의성 있는 규제해소 전략 수립이 가능해졌다"며 "실증 착수 단계에서부터 유효한 실증데이터를 확보해 기업이 원하는 첨단·신산업의 규제해소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 서부발전, 디지털 전문가 양성으로 경쟁력 강화

디지털 전환·스마트 발전소 운영 위해  
매년 '디지털 이노베이터' 선발·운영  
2035년까지 200명으로 확대 계획

한국서부발전이 업무 효율화, 생산성 향상을 위한 발전 분야 디지털 전문가 양성에 나선다. 서부발전은 9월~10월까지 이틀간 대전컨벤션센터에서 디지털 인재 양성 사업의 일환으로 '디지털 이노베이터 역량 강화 워크숍'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서부발전은 2021년부터 매년 디지털 전환·스마트 발전소 운영을 위해 구성원을 대상으로 '디지털 이노베이터'를 선발·운영하고 있다. 디지털 이노베이터의 활동 과정은 생성형 인공지능 등 최신 기술을 활용한 업무 간소화, 발전 운영 최적화, 신사업 모델 창출 등으로, 오는 2035년까지 200명까지 늘릴



한국서부발전은 9월~10월 대전컨벤션센터에서 디지털 인재 양성 사업의 일환으로 '디지털 이노베이터 역량 강화 워크숍'을 진행했다. /서부발전

계획이다.

서부발전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분석, 가상모형(디지털트윈)·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 데이터 거래를 4대 중점 기술 분야로 선정하고 관련 디지털 활동에서 성과를 낸 직원을 포함할 방침이다.

서부발전 관계자는 "워크숍을 통해 지원자들이 최신 디지털 기술을 이해하고 실제 업무에 활용해 업무 효율성은 물론 나아가 회사 경쟁력을 키우길 기대한다"며 "향상된 업무 역량이 실제 성과 창출로 이어지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 꼬치의품격, 가맹계약 시 정보공개서 미제공 '적발'

공정위, 가맹본부에 시정명령 부과  
8개월간 16명 희망자에 위반 행위

꼬치 전문점 '꼬치의품격'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와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 제공의무를 위반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10일 꼬치의품격 가맹본부인 아이센스에프앤비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아이센스에프앤비는 2019년 11월 25일 ~ 2020년 7월 14일까지 약 8개월간 16명의 가맹 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와 인근가맹점 현황 문서를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했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와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해야 하며, 그로

부터 최대 14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력 등 가맹본부의 일반현황과 가맹점 사업자의 영업개시 전·후 비용 부담의 항목과 금액,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제한 등 가맹사업 운영과 관련된 일체의 정보가 담겨있다.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는 가맹 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10개의 상호, 소재지, 전화번호가 적힌 문서로 가맹 희망자의 의사결정에 기초가 된다.

가맹계약에서 정보공개서 등 미제공 행위는 공정위가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시정조치 이상의 조치를 내린 위반행위 중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 가맹 희망자의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1년간 공정위 시정명령 이상 조

치가 처분된 21개 사건을 분석한 결과, 시정조치를 받은 21개 가맹본부 중 71%에 해당하는 15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등을 제공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가맹본부들의 경각심을 일깨워 가맹희망자가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한 채 가맹본부와 계약하는 일이 없도록 가맹희망자들의 피해를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정보공개서 미제공 행위에 대해 주요 불공정행위 중 하나로 집중 감시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아이센스에프앤비는 2019년 11월 처음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해 꼬치의품격 가맹사업을 시작했으며, 이외에도 2023년말 현재 '아이센스PC방', '만화카페 빌튼' 등 다수의 가맹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세종=한용수 기자

## 내비게이션으로 홍수위험 실시간 알림 제공

환경부-과기부, 민간기업과 '맞손'

환경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은 10일 도로·지하차도 침수사고 예방을 위한 '내비게이션 고도화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는 홍수기에 도로·지하차도 침수로 인한 국민 피해가 반복되는 상황을 예방을 위한 협약이다. 민간 내비게이션 기업과 협력해 내비게이션을 통한 홍수위험 실시간 알림(홍수경보 및 댐 방류 정보)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협약에는 카카오모빌리티, 티맵모빌리티, 네이버, 현대차·기아, 맵퍼스, 아이나비 시스템즈,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등이 참여했다.

민관 협력을 보다 공고히 하는 차원에서 과기정통부와 환경부 장관, 관련 기업·기관의 대표들이 공동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향후 지속적인 내비 고도화를 통해 침수사고뿐 아니라 다양한 재난 상황에 대응한다는 데 합의했다.

지난해 7월부터 정부와 민간기업 간 긴밀한 협력이 시작됐다. 올해 1월에는 환경부·과기정통부의 주관 아래 '도로·지하차도 침수사고 예방을 위한 민관 합동 내비게이션 고도화 특별전담



지난해 9월 빗물에 잠긴 부산의 한 산책로 /뉴스

반'을 발족했다. 이를 통해 데이터 중계를 비롯해 모의 테스트 등을 체계적으로 수행한 결과 올해 장마철에 맞춰 시의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오늘 업무협약으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홍수예보 정책과 민간의 첨단 기술을 더욱 접목 시키겠다"며 "홍수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급격한 기후변화에 따른 국민 피해 최소화와 위기대응역량을 제고하는 데 디지털 기술이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인 민·관협력을 경주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재 기자 kys@

## 근로복지공, 순천시 1인 자영업자 돕는다

최대 100% 보험료 지원

근로복지공단은 10일 순천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순천시 소재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에 고용보험료 20%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원금(소득금액별 최대 80%)을 더해 최대 100%까지 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없거나 50인 미만 사업주로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등 일부 요건을 충족하면 가입 가능하다. 올해 7월 1일부터는 농림어업 경영주 보호를 위해 사업자등록 없이 농어업경영체 등록 경영주도 원하면 가입 가능토록 요건을 완화했다.

보험 가입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

비스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콜센터로 문의하거나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순천시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은 구비서류를 첨부해 소상공인원스톱 지원센터에 방문해 신청 가능하며, 순천시 소상공인 원스톱 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소득이 불규칙한 자영업자의 생활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로 내일배움카드로 국비 무료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고, 1년 이상 가입 및 매출 감소 등 비자발적 폐업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7개월까지 구직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박종길 이사장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종합대책 발표에 발맞춰 많은 분이 보험료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업무협약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 폴리텍대-한전산업, 기술인재 양성 등 협력

구직자·재직자 직무능력 향상

한국폴리텍대학교와 한전산업개발이 발전설비 분야 기술인재 양성과 재직자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협력을 약속했다.

폴리텍대는 10일 서울 중구 한전산업 본사에서 한전산업과 ▲기업 맞춤형 교육 커리큘럼 개발 상호 지원 ▲재직자 및 퇴직예정자 직업훈련 프로그램 공동 개발·운영 등의 내용을 담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협약에 따라 한전산업은 지역 인재 양성과 취업 지원을 위해 기

업 견학 및 현장실습 프로그램 운영과 채용 정보 제공 및 특별 채용 제도 운용에도 힘쓰기로 했다.

이밖에도 상호 발전을 위한 인력·기술·산업정보 교류, 지역사회 상생발전을 위한 사회공헌 프로그램 운영, ESG 경영 실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게 된다.

이철수 폴리텍대 이사장은 "이번 협약으로 각 기관의 핵심 역량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 구직자와 재직자의 직무능력 향상은 물론, 발전설비 분야 기업과 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 韓 농가와 상생 4탄... 맥도날드 '매운맛 버거' 선보인다

‘한국의 맛 프로젝트’ 신메뉴 출시 ‘진주 고추 크림치즈 버거’ 등 3종 전메뉴 식재료 60% 국내산 활용

한국맥도날드가 신메뉴 ‘진주 고추 크림치즈 버거’를 포함한 신메뉴 3종을 출시하면서 올해로 4년차에 접어드는 ‘한국의 맛(Taste of Korea)’ 프로젝트를 이어간다.

‘한국의 맛’은 맥도날드가 지난 2021년 론칭한 로컬 소싱 프로젝트로 국내산 식재료를 활용한 신메뉴를 출시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고객들에게는 더 맛있고 신선한 메뉴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기획됐다.

10일 양형근 한국맥도날드 대외협력 담당 이사는 “‘한국의 맛’ 제품은 누적 판매량 2000만 개를 돌파했고, 제품 개발을 위해 수매한 농산물 누적 수급량은 743t을 넘어섰다”고 프로젝트 성과에 대해 밝혔다.

이어 ‘맥도날드의 ‘한국의 맛’ 프로젝트는 소셜커뮤니티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으며, 타 브랜드들도 로컬 소싱에 뛰어드는 계기로 이어져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덧붙였다.

맥도날드가 ‘한국의 맛’ 프로젝트를



맥도날드는 알싸하고 매콤한 진주 고추가 들어간 ‘진주 고추 크림치즈 버거’를 포함한 신메뉴 3종을 출시한다. /한국맥도날드

통해 선보인 대표 메뉴로는 ‘진도 대파 크림 크로켓 버거’ ‘창녕 갈릭 버거’ ‘창녕 갈릭 치킨 버거’ ‘보성녹동 버거’ 등이 있다.

지역 농가와 상생하기 위해 ‘한국의 맛’ 프로젝트 외에도 판매되는 모든 메뉴에 들어가는 식재료의 60%를 국내산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매년 1만6000t에 달하는 식재료를 수급하고 있다. 각 지역 자체단체에서 맥도날드의 이러한 공로를 인정해 표창도 수여했으며, 지난해 연말에는 3년간의 성과를 높이 평가해 농식품부에서 장관상을 수여한 바 있다.

올해 출시하는 신메뉴는 ‘진주 고추 크림치즈버거’, ‘진주 고추 크림치즈 머핀’, ‘영동 사인머스켓 맥피즈’ 3종이다.

양 이사는 “진주는 고추 시설재배 생산량 국내 1위의 지역으로 비옥한 토양, 풍부한 일조량, 깨끗한 남강이 흐르는 청정도사이다. 일정한 고품질의 고추 공급이 가능해 선정했다”며 “진주 고추는 높은 캡사이신을 함유하고, 과피가 두꺼워 아삭아삭한 식감을 자랑해 버거와 어울린다”고 덧붙였다.

‘진주 고추 크림치즈버거’는 고품질의 진주 고추를 매콤새콤한 고추 피클로 재가공한 후 크림치즈와 조합한 ‘진



한국맥도날드 대외협력담당 양형근 이사가 10일 맥도날드 신사역점에서 열린 2024 한국의 맛 신메뉴 출시 기념 행사에서 발표하고 있다. /한국맥도날드

주 고추 크림치즈’가 토핑으로 들어가 매운 감칠맛을 선사한다.

버거의 핵심인 소고기 패티가 두 장 들어가 풍미를 극대화 했으며 짭짤한 베이컨과 매콤한 토핑이 어우러진다. 버거 하나당 사용된 고추는 1/4정도다.

백창호 한국맥도날드 메뉴팀장은 “전세계 인구 중 75%가 고추를 섭취할 만큼 고추는 글로벌한 식재료”라며 “특히 한국인은 1인당 연간 4kg 고추를 소비할 정도로 즐겨먹는 식재료이기 때문에 메뉴에 고추를 접목하게 됐다”고 개발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메뉴 기획·개발에는 1년 3개월이 소

요됐다. 백 팀장은 “메뉴를 개발하면서 ‘어떠한 매장에서 취식하든 버거의 품질을 고르게 유지할 것’을 가장 최우선 과제로 두고 개발했다”며 “메뉴를 대량 생산 했을 때 품질을 유지할 수 있을지 협력업체와 긴 시간 논의하고 연구했다”고 전했다.

함께 출시되는 ‘진주 고추 크림치즈 머핀’은 맥도날드 ‘한국의 맛’ 프로젝트 최초로 출시하는 맥모닝 메뉴다. ‘진주 고추 크림치즈’와 함께 ‘맥치킨’의 담백한 치킨패티가 조화를 이룬다.

‘한국의 맛’ 프로젝트로 출시된 메뉴가 상시메뉴로 전환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고객들의 반응과 식재료 수급 안정성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신메뉴 출시를 위해 수매한 고추는 약 5t이다. 예상 판매 수치는 정해 놓지 않았지만, 기존에 팔린 제품의 수치는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다.

백 팀장은 “‘한국의 맛’ 프로젝트는 4년째 전개하고 있는데 메뉴에 대한 반응이 좋아서 해외로 진출하길 기대한다”며 “기존에 출시한 메뉴에 대해 해외 맥도날드에서 함께 정보를 공유하고 검토한 경우가 있긴 하다. 이번 신메뉴가 진출하는 첫번째 메뉴가 되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 바닷물까지 퍼왔다... 신선도 최상 ‘집념전복’

롯데마트, 복날 맞아 집념전복 캠페인 유통과정 개선 진행으로 신선도 유지

롯데마트는 복날을 맞아 오는 11일부터 8월 말까지 약 두 달간 신선도를 새롭게 ‘집념전복’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롯데마트와 슈퍼는 캠페인 기간 동안 점포 내부와 외관에 ‘집념전복’ 포스터, 현수막을 붙여 방문객 대상으로 제철 전복의 신선함을 알릴 계획이다.

롯데마트는 최상의 전복 신선도 유지

를 위해 배송, 보관, 진열 단계 등 유통과정 전반에 걸쳐 개선 작업을 진행했다. 먼저, 4단계에 걸친 검수 작업을 통해 엄선한 전복 원물만 취급한다. 양식장에서 1차 검수, 육지 작업장에서 2차 검수, 점포 출하 전 3차 검수, 점포 입고 후 샘플 검사까지 총 4차 검수를 통해 최상의 전복만 판매될 수 있게 했다. 더불어, 균일한 크기의 전복을 제공하고자 기존 6가지(25~30미) 크기에서 3가지(25~27미) 크기로 운영 범위를 축소했다.

또한 바다의 활기를 매장에 그대로

옮기고자 해수를 담은 활어차를 통해 전국 롯데마트 100여개점에 납품하고 있다. 활어차 운송의 경우 단순 냉장 배송 방식과 달리 해수를 담아 배송함으로써 전복에 꾸준한 산소를 공급해 신선도를 오래 유지할 수 있다.

현재 롯데마트는 동업계 대비 가장 많은 활어차 배송 횟수를 자랑한다. 평균 주 5회가량 해수 활어차를 통해 점포 직납을 진행하고, 복날이 있는 7~8월에는 배송 횟수를 주 6회로 확대한다.

전복을 보관하는 수족관의 수온 기

준도 재정립했다. 기존에는 생물 전복의 생존 가능 온도인 10도 수준에서 수온을 관리했다면, 전복의 활성도가 가장 높은 12도의 수온으로 맞춰 별도로 관리한다. 더불어 다른 갑각류와 함께 진열되지 않도록 전복만 보관하는 별도 수족관을 운영하고 있다.

롯데마트는 고객에게 판매되는 순간까지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전복 전용 포장 용기’를 단독 개발했다. 이전에는 전복을 용기에 쌓아 랩 포장 후 판매를 했다면, ‘전복 전용 포장 용기’는 개별 포장이 될 수 있도록 흡이 파여있어 전복의 겹침이나 눌림을 방지하고 고객이 전복 품질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최빛나 기자 vitna@



트로피컬 썸머 플레이. /SPC

## 베스킨라빈스-구글플레이 AI 개발 아이스크림 ‘트로피컬 썸머 플레이’

SPC 베스킨라빈스가 구글플레이와 함께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아이스크림인 ‘트로피컬 썸머 플레이’를 개발하고 오는 15일 ‘워크샵 바이 베스킨라빈스(워크샵)’에서 론칭 행사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트로피컬 썸머 플레이’는 구글의 최신 AI모델 ‘제미니(Gemini)’를 활용해 기획하고 개발한 제품을 베스킨라빈스의 기술력으로 구현해 탄생한 아이스크림 맛의 종류다.

이번 협업은 AI와 빅데이터 분석 등 IT를 경영에 접목하는 한국 베스킨라빈스의 브랜드 혁신 활동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베스킨라빈스는 올해 2월 실험과 창조 의 혁신 공간으로 새롭게 선보인 워크샵 매장을 통해 ‘베스킨라빈스 AI NPD(신상품개발)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신원선 기자

## 현대백, 아우구스티누스 바더 팝업 오픈

21일까지 더현대서울 1층에 마련

현대백화점은 오는 21일까지 더현대서울 1층에서 프리미엄 뷰티 브랜드 ‘아우구스티누스 바더’의 팝업스토어 ‘바더 랩 인 서울’을 진행한다



현대백화점 더현대 서울 아우구스티누스 바더 행사장 전경. /현대백화점

10일 밝혔다. 아우구스티누스 바더는 독일 라이프치히 대학의 교수이자 피부 과학 및 재생 의학 분야에서 저명한 학자인 아우구스티누스 바더 교수가 2018년 창립한 독일 럭셔리 스킨케어 브랜드다.

이번 행사에서는 아우구스티누스 바더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스킨케어 성분인 ‘트리거 팩터 콤플렉스8’을 사용한 스킨케어·바디·헤어 제품을 판매한다.

트리거 팩터 콤플렉스8은 자연 유

래 아미노산, 고등급 비타민, 피부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피부 본연의 활동 분자를 결합해 만든 성분으로 피부 건강에 도움을 준다. 대표 상품으로는 더 리치 크림(30ml, 26만2000원), 더 티티드 립밤(4g, 6만원), 더 페이스 미스트(100ml, 13만5000원) 등이 있다. /최빛나 기자

## 11번가, 최대 72% 할인 ‘월간 십일절’

오늘부터 물놀이 수요 겨냥 상품 선택

11번가가 오는 11일부터 최대 72%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7월 ‘월간 십일절’을 진행한다

10일 밝혔다. ‘휘닉스파크 객실·워터파크 패키지’(9만9000원부터), ‘아레나실내수영복·수영용품’(8500원부터) 등 물놀이 수요를 겨냥한 상품들을 선보이고, 여름방학이면 판매량이 높아지는 2학기 용 참고학습서 할인 판매도 진행한다. 방학이면 찾아오는 ‘돌밥(돌아서면 밥)’과 ‘돌간(돌아서면 간식)’ 지옥 탈출을 돕는 갈비탕, 닭볶소스, 만두 등 간편식과 핫도그, 치킨, 망고바 등 간식도 다채롭게 준비했다.

시원하고 건강한 여름 나기를 위한 여름 먹거리도 ‘시선집중’ 코너를 통해 할인

가로 선보인다. 오는 15일 초복을 앞두고 당일 손질한 백숙용 생닭(1kg)을 5900원에, 완도산 활전복(1kg)을 2만5000원에 판매하며 저렴하게 보양식을 준비하려는 소비자들을 공략한다. 여름 별미 복숭아를 듬뿍 담은 ‘투썸플레이스 복숭아 생크림케이크’ e쿠폰은 15% 할인된 3만2300원에, ‘하겐다즈 파인트 아이스크림’(3개)은 2만4720원에 만나볼 수 있다.

‘타임딜’ 대표 상품으로는 오는 11일 오전 11시에 ‘삼성전자 인버터 벽걸이 에어컨’을 최대 혜택가인 49만원 대에, 12일 자정에는 ‘다낭 힐튼호텔 5일 패키지’를 26만원 대부터, 오후 11시에는 여름 대표 샌드 ‘LF 핏플랩’을 시즌오프 특가로 2만원 대부터 판매한다. 13일 오후 3시에는 ‘LG 트롬 위시타워’를 214만원 대에 선보인다. /최빛나 기자



# 시각장애인용 촉각 패드 등... 전 세계에 'K-바이오' 알린다

## 바이오플러스-인터팩스 코리아

국내외 최신기술·제품 공유 협력  
론자 등 250개 기업·450개 부스  
닷, 점자 촉각 디스플레이 상 구현  
'닷 패드' 점자책 대신 콘텐츠 접해

국내외 바이오 기업이 최신 기술과  
제품을 공유하고 상생과 협력을 모색  
하기 위한 장이 열렸다.

10일 바이오·제약 업계에 따르면,  
오는 12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  
되는 '바이오플러스-인터팩스 코리아  
2024'가 막을 올렸다.

바이오플러스-인터팩스 코리아는  
국내 최대 규모 바이오 산업 전시회로,  
한국바이오협회와 리드엑시비전스코  
리아가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가 주  
관한다. 올해는 '세계 최고의 실감나는  
바이오헬스케어 컨벤션'이라는 대주제  
로 진행된다.

먼저 행사 시작을 기념하는 개막식에는  
고한승 한국바이오협회장, 강경성 산  
업부 제1차관, 체틴 알리 돈메즈 튀르키  
예 산업기술부 차관, 손주범 리드엑시비  
전스코리아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이번 개막식에는 바이오와 다양한  
산업 간 융합 가능성을 제시하고 영감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된 'BIX I  
nspiration'이 첫선을 보였다. 이에 따  
라 디지털헬스케어 기업 닷의 김주운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10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바이오플러스-인터팩스 코리아 2024 개막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공동창업자 겸 대표이사가 자사의 '닷  
패드'를 공개했다.

'닷 패드'는 시각장애인용 촉각 패드  
다. 김주운 대표는 '점자'만으로 디지  
털 정보를 전달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는 점을 짚었다. 김 대표는 "모든 정보  
를 점자로 기록하면 두꺼운 책이 될  
것"이라며 "점자책 대신 닷 패드로 모  
든 콘텐츠를 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점자의 촉각을 디스플레이 상에서  
구현하는 데 성공한 것이다.

아울러 올해 처음으로 전시장 내 단  
독 부스를 설치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비롯해 에스티젠바이오, 론자 등 글로  
벌 위탁개발생산(CDMO) 기업, 삼성  
바이오에피스, 지씨셀 등 바이오 기업,  
유한양행, 한미약품, 대웅제약 등 국내  
대표 제약 기업 등 250여 기업이 450여  
개 부스를 마련했다.

특히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경우, 류  
머티스 관절염, 황반변성 등을 체험할  
수 있는 두꺼운 장갑과 안경들을 함께  
전시해 방문객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환자의 일상을 재현해 의료 현장에서  
필요한 사항들을 직관적으로 경험하게  
함으로써 자사 제품의 특징점을 쉽게  
알릴 수 있다는 것이 회사 측의 설명이  
다. 또 전자 디스플레이를 부스벽에 설  
치해 자사 제품의 약물 기전과 성분 구  
조를 입체적으로 표현해 방문객들의  
이해를 도왔다.

이밖에 국내 바이오 소재·부품·장비  
를 대표하는 기업들이 참여하는 소부장  
특별관 또한 기대가 크다. 바이오소부장  
연대협력협의체 특별관에 참가하는 기  
업들은 3년 연속 BIX에 참석하며 글로  
벌 공급망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또 국내 유일 콜드체인 물류 및 패키

지를 대표하는 콜드체인 특별관에서  
는 글로벌 대표 기업인 씨세이프, 엔바  
이로테이너, 월드큐리어, 마켄 등이  
참가한다.

전시장 부스뿐 아니라 별도 장소에  
서 진행된 컨퍼런스도 첫날부터 큰 인  
기를 끌었다.

올해 컨퍼런스는 '모든 가능성을 수  
용하다'를 주제로 모든 가능성을 기회  
의 발판으로 삼아 성장 동력을 모색하  
고 혁신을 이루자는 의미라는 것이 한  
국바이오협회 측의 설명이다.

이날 오전 열린 'GLP-1: 비만치료  
제 시장의 적응증 확대 흐름' 전문 세션  
에는 기존 수용 인원보다 많은 인원이  
몰려 대다수 방문객들이 선 채로 강연  
을 듣는 등 높은 관심이 나타났다.

해당 컨퍼런스에는 최인영 한미약품  
R&D센터장 전무이사, 김미경 동아에  
스티 연구본부장, 김중균 프로젠 대표  
이사, 이슬기 디앤디파마텍 대표이사  
등이 순서로 연자로 나섰다.

이들은 최근 비만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현황을 소개하고, 각 기  
업들이 주력하고 있는 약물 기전과 특장  
점을 설명했다. 무엇보다 미래 비만 료  
제는 식욕 억제, 체중 감소에 그치는 것  
이 아니라, 고혈압, 신장, 심장 등 새로  
운 적응증으로 확장돼 의약품 시장의 중  
심이 될 것이라는 것이 최인영 한미약품  
R&D센터장 전무이사의 설명이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1위팀인 엠보성팀과 동아오츠카 박철호대표  
이사 사장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동아오츠카

## 동아오츠카 e스포츠 대회 '오로나민C그니처' 성료

동아오츠카의 스파클링 멀티비타민  
'오로나민C'가 e스포츠 대회인 '오로  
나민C그니처 시즌3, 텐션대전'을 지난  
달 24일 팀원 선정식부터 7월 6일 오프  
라인 결승전까지 성황리에 마쳤다고  
10일 밝혔다.

'오로나민C그니처'는 동아오츠카와  
SOOP(옛 아프리카TV)이 함께 하는  
오로나민C 브랜드의 e스포츠 대회다.  
스타크래프트로 진행된 이번 '오로  
나민C그니처 시즌3, 텐션대전'은 SOOP  
인기 BJ 20명이 참가했으며 한팀 당 5  
명, 총 4개팀으로 구성해 스타유니버  
시티, 대학교 컨셉으로 진행됐다.

개막식인 팀원선정식에는 4개팀 대  
표들의 유쾌한 입담과 오로나민C 광고  
를 보고 오로나민C의 특징적인 10가지  
텐션성분을 맞추는 게임을 진행하는  
등 재밌는 이벤트를 통해 텐션대전의  
서막을 알렸다.

6회차로 진행된 '오로나민C그니처  
시즌3, 텐션대전'은 매 경기 SOOP에서  
최상위권 동시 접속자 등극 등 많은 유  
저들이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경기를 시  
청했고, 지난 6일 상암 콜로세움 경기장  
에서 진행된 결승전에도 약 500여명의  
관람객이 현장에 방문하며, 오로나민C  
그니처 대회의 인기를 실감케 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 에이피알, 日 '메가와리' 행사서 매출 45억 달성

판매 순위 '부스터 프로' 1위 올라  
'백옥 프리미엄 세트' 뷰티부문 2위

글로벌 뷰티테크 기업 에이피알이  
일본 시장에서 판매 흥행으로 성과를  
내고 있다.

에이피알은 지난 6월 1일부터 12일  
까지 열린 일본 '메가와리' 행사에서 매  
출 45억원을 기록했다고 10일 밝혔다.

'메가와리'는 일본 대형 온라인 플랫  
폼 '큐텐'에서 분기마다 1회씩, 1년에  
총 4회에 걸쳐 진행되는 할인 행사다.

이번 행사에서 에이피알은 화장품  
브랜드 '메디큐브'와 '에이프릴스킨'  
그리고 뷰티 디바이스 '에이지알' 등을



메디큐브 '제로모공패드' /에이피알

선보였다.

에이피알은 메디큐브의 '제로모공  
패드'와 뷰티 디바이스 '부스터 프로'

의 소비자 인기가 매출 실적에 주효했  
다는 분석을 내놨다.

약 12일 간의 행사 기간 동안 '제로  
모공패드'는 2만1000개가 넘게 판매됐  
고 '부스터 프로'는 3400대 이상의 판  
매고를 올렸다. 그 결과, 6월 12일 기준  
당일 판매 순위에서 '부스터 프로'는 뷰  
티 부문 1위에 오르기도 했다.

이밖에 에이피알이 '메가와리' 행사  
를 맞아 특별 구성한 '백옥 프리미엄 세  
트'는 6월 11일 당일 판매 순위에서 뷰  
티 부문 2위를 차지했다. 해당 세트는  
메디큐브의 '글루타치온 글로우 엠  
플', '제로 원데이 엑소좀 샷', '콜라겐  
랩핑 마스크팩' 등 피부 미백 제품으로

구성됐다.

에이프릴스킨의 '하이퍼커버핏 쿠  
션'과 '캐로틴 IPMP 멜팅 클렌징밤'  
등도 소비자 관심을 끌었다는 것이 에  
이피알 측의 설명이다.

이러한 성과를 기반으로 에이피알은  
글로벌 주요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판매 전략을 적극 본격화할 계획이다.

현재 에이피알은 일본 '큐텐', 미국  
'아마존', 중국 '더우인' 등에 진출해 있  
다. 에이피알의 글로벌 공식 자사몰에  
서 각 국가별 플랫폼으로 판로를 확장  
해 브랜드 인지도 제고와 실적 성장을  
동시에 이루겠다 방침이다.

/이청하 기자

## 코스맥스그룹 "뷰티&헬스 종합 기업 도약" 이화의료원, 전립선비대증 수술 성공

새 CI 공개... "글로벌 정체성 통일"

글로벌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의약  
품 연구·개발·생산(ODM)기업 코스맥  
스그룹이 CI 현대화 작업을 진행해 기  
업 정체성을 강화했다.

코스맥스그룹은 신규 CI를 공개했다  
고 10일 밝혔다. 새로운 CI에는 K뷰티  
를 넘어 글로벌 뷰티&헬스 종합 서비스  
기업으로 도약한 코스맥스그룹의 비전  
을 담았다는 것이 회사 측의 설명이다.

새 CI는 코스맥스의 경영 철학인 바

름·다름·아름을 상징하는 사과 3개 형  
태의 심볼을 유지하고 기존 우측 상단  
에서 중앙 배치로 수정했다. 해외 법인  
지명은 워드마크 아래로, 계열사명은  
심볼 오른쪽에 배치해 기본 CI를 기준  
으로 통일성을 갖췄다. CI 하단에 함께  
사용하던 문구는 삭제했다.

또 기업 정체성을 함축한 문구를 기  
존 'K뷰티의 과학'에서 '아름다움의  
과학'으로 변경, 향후 코스맥스그룹을  
설명하는 고유 수식으로 사용하기로  
했다.

/이청하 기자

'아쿠아블레이션' 도입 후 첫 성과

이대비뇨기병원이 첨단 로봇치료기  
기를 통해 전립선비대증 치료를 극대  
화하고 있다.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은 이대비뇨  
기병원이 '아쿠아블레이션' 도입 후 첫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10일 밝  
혔다.

이화의료원에 따르면 이대비뇨기병  
원은 앞서 지난 5월 23일 아쿠아블레이  
션을 도입했다. '아쿠아블레이션'은 전

립선 비대조직에 고속으로 분사되는  
물(워터젯)을 이용해 제거하는 수술 시  
스템이다. 전립선초음파와 내시경을  
동시에 보면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자  
동화 수술이 가능하다.

특히 주변 조직에 영향을 덜 주면서  
크기가 큰 전립선 제거가 가능해 기존  
수술보다 합병증이 적고, 성 기능 보존  
가능성도 높다. 또 열을 사용하지 않고  
조직을 절제하기 때문에 열로 인한 주  
변 조직의 괴사 등 영향을 최소화하고  
통증도 적다.

/이청하 기자

## LG생활건강 '프레시안' 유리알 광택 '립젤리'

LG생활건강은 비건 메이크업 브랜  
드 '프레시안'에서 광택감과 입술 관리  
를 동시에 구현해주는 '글래스라이크  
립젤리'를 출시했다고 10일 밝혔다.

LG생활건강에 따르면 이번 신제품  
은 '비건 멜팅 립' 제품으로 '유리알처  
립 반짝이는 입술'을 완성해 준다. 이  
와 함께 부드러운 왁스 제형이 입술에  
얇은 피막을 형성해 입술을 마르지 않  
게 관리할 수 있다. '살구씨 오일'과 '샤  
인 에센스 오일' 성분이 건조해진 입술  
에 영양감도 제공한다.

LG생활건강은 글래스라이크 립 젤  
리를 취향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9  
가지 색상으로 구성했다. 특히 '프리  
징'과 '리빌드' 색상은 피부의 수분도  
와 입술 본연의 색에 따라 제품 색상과  
전혀 다른 색이 반전으로 나타나는 것  
이 특징이다.

/이청하 기자





# 2024 100세 플러스 포럼 시즌2 밸류업 K-마켓, 100세시대 안전망

## 2024.07.17(수) 14:00~17:00

서울 여의도동 한국거래소(KRX) 1층 컨퍼런스홀



**이채원**  
라이프자산운용 이사회 의장  
前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 대표이사  
前 한국투자증권 자산운용본부장



**김경록**  
미래에셋자산운용 고문  
前 미래에셋투자외연금센터 대표  
前 미래에셋자산운용 채권 CIO 및  
경영관리부문 대표이사



**정재훈**  
KB국민은행 부동산사업부(P) 수석차장  
명지대학교 일반대학원 겸임교수



**김세환**  
KB증권 리서치본부 투자컨설팅부 팀장  
미국 주식 관련 투자 전문 애널리스트

### ● 행사개요

행사명: 2024 100세 플러스 포럼 시즌2

주 제: 밸류업 K-마켓, 100세시대 안전망

일 시: 2024년 7월 17일(수) 14:00~17:00 (VIP 티타임 13:30~14:00)

장 소: 서울 여의도동 한국거래소(KRX) 1층 컨퍼런스홀

주 최: 메트로신문, 메트로경제

후 원: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

등 록: 사전등록 무료(현장등록 5만원)

문 의: 100세플러스포럼 사무국 02)721-9818,

forum@metroseoul.co.kr

※ 포럼에 참가하는 분께 소정의 사은품을 증정합니다.

### ● 프로그램

구 분	시 간	프 로 그 램
참가등록	13:00~14:00	참가접수 및 등록 ※VIP티타임: 13:30~14:00
개막식	14:00~14:20	<축사>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 서유석 금융투자협회 회장 <개회사> 이장규 메트로경제 대표이사
기조강연	14:20~15:00	이채원 라이프자산운용 이사회 의장 : 국내외 경제상황 진단과 금융투자시장 전망
강연	15:00~15:40	김경록 미래에셋자산운용 고문 : 100세시대 자산관리 전략
	15:40~16:20	정재훈 KB국민은행 부동산사업부(P) 수석차장 : 부동산시장 진단과 투자 전망
	16:20~17:00	김세환 KB증권 리서치본부 투자컨설팅부 팀장 : 해외주식 투자전략

※ 상기 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대상, 제주 지역 상생브랜드 상품 만든다**

종합식품기업 대상이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동반성장위원회와 함께 '제주 지역 상생브랜드 상품 출시'를 위한 4자 간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오재운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장,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 오영교 동반성장위원장, 임정배 대상 대표이사(왼쪽부터)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상



**롯데면세점, '국가고객만족도' 6년 연속 1위**

롯데면세점이 '국가고객만족도(NCSI)' 조사에서 면세점 서비스업 부문 1위 기업으로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롯데면세점은 고객 쇼핑 편의 및 서비스 만족도 제고를 위한 노력을 인정받아 80점을 획득하며 6년 연속 1위를 지켰다. 김주남 롯데면세점 대표이사(오른쪽)와 안완기 한국생산성본부 회장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롯데면세점



**한국콜마, 자립준비청년 후원금 2500만원 기탁**

한국콜마는 지난 9일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사회 첫걸음'을 위한 후원금 2500만원을 재단법인 밴드를 통해 자립청년후원 사회적기업인 소이프스튜디오에 전달했다고 10일 밝혔다. 최현규 한국콜마 대표이사(왼쪽 두 번째), 고대현 소이프스튜디오 대표이사(오른쪽 첫 번째), 하정은 재단법인 밴드 이사장이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콜마



**신한라이프, 임직원 정보보호 캠페인 실시**

신한라이프는 서울 중구 소재 신한 L타워에서 '정보보호의 날'을 맞아 임직원 정보보호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정보보호 유관부서에서 출근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개인신용정보 저장 금지 ▲개인정보 포함된 문서 방치 금지 등 정보보호 실천 수칙을 담은 카드를 제공하고 정보보호에 대한 중요성을 알렸다. /신한라이프



**고려아연, 여름철 보양식 나눔 봉사활동**

고려아연이 대한적십자사와 함께 취약계층을 위한 여름철 보양식 나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고려아연은 지난 9일 서울 노원구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시지사 북부봉사관에서 임직원과 적십자봉사원 30여명이 장어구이를 직접 조리하고, 여름 제철 과일과 함께 홀몸 어르신, 한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 150세대에게 전달했다. /고려아연

# LG화학 경영진, 인도 AP주 방문... 인도적 지원 강화

4년전 생산법인 사고 피해주민 위로 공장 주변 마을 200억 추가 지원

LG화학이 4년 전 LG폴리머스(인도 생산법인) 사고 주민들을 위한 인도적인 지원 확대에 나선다.

10일 LG화학에 따르면 신학철 부회장과 CFO 차동석 사장, 노국래 석유화학사업본부장 등 최고 경영진은 지난 9일 인도 남부 AP주를 방문해 사고 주변 마을 주민들과 찬드라바부 나이두(Chandrababu Naidu) 주총리를 만났다.

신 부회장은 LG폴리머스 사고로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깊은 위로의 뜻을 전하며, 사고 인근 마을 5000여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에 지원될 금액은 약 12억루피(200억원) 규모다.

LG폴리머스는 공장 주변 마을을 대상으로 주정부와 협의하여 생활



신학철 LG화학 부회장이 찬드라바부 나이두(Chandrababu Naidu) 인도 안드라프라데시주 총리에게 지원 확대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LG화학

지원을 제공한다. 또한 마을 주민들의 요구 사항을 반영해 건강 추적 검사와 경과 관리를 위한 검진센터를 운영하고 지정병원 진료항목을 총 15개로 확대한다. 인도 현지에 신규 재단을 설립해 마을 주민들이 지속적인 회복과 케어를 받을 수 있는 사회공헌(CSR) 활동도 추진한다.

LG화학 최고 경영진이 AP주를

직접 방문한 배경에는 현지 법원의 판결 전이라도 마을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인도적인 지원에 나서겠다는 신 부회장의 의사가 적극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신 부회장은 종합적인보상의 기반이 되는 현지 재판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마을 주민들이 이상 기후 및 경제난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

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다. 내부 논의 끝에 신 부회장은 신속한 지원을 위해 인도 현지를 직접 찾았다.

신 부회장은 이번 추가 지원책 발표와 관련해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현지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인도적인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20년 5월 코로나 팬데믹 봉쇄 기간에 발생한 LG폴리머스 사고는 공장의 저장 탱크에 장기간 보관돼 있던 공정 원료가 누출돼 벌어졌다. AP주정부는 사고 직후 피해 주민들에게 총 3억7500만루피(58억 3000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했으며, LG폴리머스는 관계 당국의 명령에 따라 현재까지 총 200억원 이상의 공탁금을 납부했다. 책임과 보상 절차를 위한 판결은 현지 법원에서 진행 중이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 한국타이어, '세계 최고 지속가능 선도기업' 선정

美 타임·스테티스타 평가 지속가능경영 성과 입증

한국타이어엔테크놀로지(주)는 미국 주간지 타임(Time) 및 데이터기업 스테티스타(Statista)로부터 '2024 세계 최고 지속가능 선도기업'에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또 영국 경제일간지 파이낸셜타임스(Financial Times) 및 스테티스타 공동 선정 '아시아·태평양 환경 선도기업 2024'에도 이름을 올리며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혁신적 노력을 입증받았다.

올해 타임과 스테티스타가 최초로 발표한 2024 세계 최고 지속가능 선도기업은 영향력 높은 글로벌 기업 5000개를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했다. 세계 상위 500개 기업, 국내에서는 15개 기업이 이름을 올렸다.

평가 항목은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20개 이상의 성과 지표와 각 기업에서 공개하는 데이터들로 한국타이어는 주요 지표에서 호평을 받으며 글로벌 최상위 ESG 경쟁력을 입증했다.

파이낸셜타임스와 스테티스타의 아시아·태평양 환경선도기업은

2018년부터 2023년 사이 매출 대비 온실가스 배출 변화 및 감축량, 탄소 정보공개프로젝트(CDP), 과학기반 감축 목표 이니셔티브(SBTi) 달성 여부 등을 종합판단해 선정하며 국내 기업 중에서는 한국타이어가 2위를 차지했다.

한국타이어는 지속가능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친환경 경영전략 및 ESG 관리 체계를 도입해 연구개발과 원료 수급부터 제조, 판매, 사용, 재활용, 폐기 등 전 과정에 걸쳐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적극 추진 중이다. /양성운 기자 ysw@

## 코스콤 경력단절여성 취업 지원

코스콤이 경력단절여성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IT취업 프로그램을 이어간다.

코스콤은 10일 영등포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영등포구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을 위한 IT 교육 프로그램 지원금 전달식을 진행했다.

올해 후원한 취업 프로그램은 '디지털 미디어 리더러시 강사과정 교육'으로, 해당 교육을 통해 경력단절여성들이 사회 재진출 역량을 강화하고 재취업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돕는다는 계획이다. /신하은 기자 godhe@

## 메타빌드-송실대, SW인재양성 MOU

연계미들웨어·인턴십 등 협력

메타빌드는 송실대 스프라탄 SW 교육원과 함께 연계미들웨어, AI, Cloud 등 SW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지난 9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MOU는 양 기관의 상호 발전을 위한 교육활동, 정보 및 인적·물적 자원교류는 물론 한국 SW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향후 두 기관은 ▲연계미들웨어

(ESB/APIG/DatHUB) ▲AI/Data/Cloud 분야 SW인재 양성 ▲교육생 모집, 교육과정 및 교재개발 ▲교·강사 교류 ▲세미나, 현장실습, 채용 프로그램 지원, 인턴십 및 멘토링 등 다양한 방면에서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메타빌드 조풍연 대표는 "송실대 스프라탄 SW교육원과 산학 협력으로 학생들이 연계기술(ESB/APIG/MSA), AI플랫폼(ML/sLLMOps) 등 메타빌드의 핵심 기술, 경험과 노하우를 쌓을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왼쪽부터)조풍연 메타빌드 대표와 송실대 송수교 교수가 MOU 각서를 들고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메타빌드

것"이라며 "양 전문 SW교육기관의 협력으로 ACx시대에서 요구되는 SW를 전문가를 배출하고 국내 SW산업의 성장에도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서현 기자 seoh@

## "캐스퍼 일렉트릭' 할인권 쏙니다"

현대차-신라면세점 제휴 프로모션

현대자동차가 '캐스퍼 일렉트릭' 론칭을 기념해 신라면세점과 손잡고 제휴 프로모션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프로모션은 오는 8월 12일까

지 약한 달 간 신라면세점 오프라인 매장(서울점, 인천공항, 제주점 등) 내 배너 또는 현장에서 배포하는 지류 안내권 및 신라면세점 앱, 웹 등 온라인 채널을 통해 진행되며, ▲차량 구매를 지원하는 '구매 이벤트'와 ▲각종 경품을 제공하는 '경품 추

첨 이벤트'로 실시된다.

현대차는 신라면세점 고객 누구나 캐스퍼 일렉트릭 구입 시 사용할 수 있는 계약금 10만원 할인 쿠폰을 제공한다.

신라면세점은 해당 쿠폰을 사용해 캐스퍼 일렉트릭을 출고한 고객 중 선착순 200명에게 10만원 상당의 신라면세점 스리워즈를 증정한다.

/양성운 기자

## 인사

◆법무부 ◇고위공무원 승진 △서울동부지검 사무국장 정영은 △서울북부지검 사무국장 이상남 △수원지검 사무국장 조병민 △울산지검 사무국장 손준근 △제주지검 사무국장 정민수

◆CBS ◇승진 △조은정 콘텐츠본부 보도국 산업부장

◆기술보증기금 ◇본부장 전보 △서울서부지역본부 정규열 △서울동부지역본부 송재연 △인천지역본부 이기원 △경기지역본부 조영길 △충청지역본부 장희철 △부울경지역본부 안일성 △대구경북지역본부 김세현

## 부음

▲한선희씨 별세, 김주현(금융위원회 위원장)씨 장모상 = 10일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1호실(지하1층), 발인 12일 오전 7시40분, 장지 모란공원. 02-3010-2000

▲곽수자씨 별세, 구본영씨 배우자상, 구희진·희정씨 모친상, 민승배(BGF리테일 대표이사)·이선호(JATCO KOREA 시스템&제어개발실장)씨 빙모상 = 10일, 서울 일원동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2호실(11일 15호실로 변경 예정), 발인 12일 오전 10시, 장지 천안추모공원. 02-3410-3151



# '화100'을 보셨나요?



홍경안  
시시일락

이 글을 읽는 독자 중 얼마 전 막을 내린 미술 오디션 프로그램 '화100'(MBN)을 시청한 이는 얼마나 될까. 모르긴 해도 알 사람은 알았을 것이고 볼 사람은 봤을 것이다. 사회적 화제까지 아니었지만, 적당히 회자되고 외면받지는 않았구나 싶을 만큼의 이야깃거리는 됐을 것이라 여겨지니 말이다.

실제로 심사위원으로 함께한 필자의 경험도 그랬다. 최근 미술계 현장에서 만난 미술인들은 가장 먼저 '화100' 얘기부터 꺼냈다. 연락 뜸하던 학창시절 동기들의 안부 속에도, 길을 걷다 우연히 만난 일반인들의 인사말에도 '화100'은 자주 등장했다. (방송으로 연장된 비평 직능이 흑자에겐 흥미로웠던 모양이다.)

'화100'은 논쟁적인 프로그램은 아니었다. 곧잘 비교되는 '아트스타코리아'(CJ E&M)에 견주면 확실히 그렇다. 사실 국내 최초의 미술 서바이벌을 내세운 '아트스타코리아'는 2014년 방송 당시 상당한 관심

을 받았다. 미술을 어떻게 정량화하고 평가할 수 있는 지에서부터 목적을 부여하는 미션에 대한 미학적 이견까지, 그야말로 방송 내내 거센 후폭풍에 시달렸다.

본방 전부터 빗발치던 전문가들의 비판은 '아트스타코리아'를 뜨겁게 달궜고, "예술의 상업화를 부채질한다"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공립미술관이 후원에 나서면서 논쟁은 논란으로까지 번졌다. 그리고 그 논란 내에는 미술과 방송의 관계, 예술과 구조의 문제, 예술가의 삶의 방식 등, 여러 담론을 생성하는 성과도 들어 있었다.

그게 10년 전이다. 그동안 많은 것이 달라졌다. 지금은 누구도 예술의 상업화를 말하지 않는다. 미술인들은 오래전부터 이어온 미술계 내 등수 매기기를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자신만은 무관하다는 듯한 전문가들의 태도를 더 이상 신뢰하지 않는다. 순응적 가치 체계를 만들어 온 주체들의 객쩍은 소리 역시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됐다.

특히 미술을 포함해 음악, 요리, 모델 등의 온갖 유사 프로그램들이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방송에서의 '경쟁'을 대하는 대중의 인식도 자연스럽게 바뀌었다. 또한 스스로 계획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을 존중하

는 사회적 분위기는 방송 출연만으로 빠르게 성공할 수 있다는 비현실적인 기대감조차 포박한 채 예술의 순수성과 예술가의 태도를 놓고 예민하게 반응하던 양태마저 소멸시켰다.

사람들은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든, 아티스타가 되기 위해 혹은 작가 자신과 작품을 홍보하기 위해 방송에 출연하든 그건 어디까지나 그들 삶의 문제여긴다. 미술계도 마찬가지다. 이는 예술과 예술가를 엄격하게 정의하며 장르를 구분 짓던 '아트스타코리아' 때와는 사뭇 다른 현상이다.

'화100'은 재미있었다는 평가가 많다. 참가자들의 인간적인 이야기와 감정을 잘 살려 시청자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공감을 이끌어낸 결과로 보인다. 다만 짧은 시간 내에 많은 내용을 담아야 하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특성상 예술적 논의나 작품 분석이 충분하게 전달되지 못한 부분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만약 향후 '화100'과 비슷한 프로그램이 다시 만들어진다면 예술의 대중화에 기여하고 신진 예술가들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무대로서의 역할과 더불어 예술의 본질과 가치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균형을 지켰으면 하는 바람이다. /미술평론가

## 뱅크의 양심



기지수첩  
이승용  
(금융부)

축구경기에서 유명한 일화가 있다. 바로 독일의 전설적인 공격수 미로슬라프 클로제의 '양심 선언'이다.

경기 중 자신의 손에 맞고 골대로 들어가 자신의 득점으로 인정된 골을 스스로 반칙을 인정, 곧바로 주심에게 어필해 득점을 취소시켰다. 침묵을 했다면 자신의 득점이 인정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페어플레이 정신을 발휘해 양심선언을 한 것이다.

이처럼 양심은 사람이 자신의 도덕적 가치와 충돌하는 행위를 저지를 때 느끼는 감정으로 직장생활에서도 자주 나타난다.

최근 3년간 은행권에서는 횡령·배임 사고가 줄이어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BNK

경남은행에선 15년 장기근무자가 수백억 원대의 횡령 사건이 일어났다. 우리은행에서는 700억원과 180억원의 횡령, NH농협은행과, KB국민은행에서도 업무상 배임 사고가 발생했다.

금융당국은 빈번히 발생하는 횡령·배임 사고를 막고자 금융권의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책무구조도'를 도입했다.

금융권 '중대재해처벌법'이라고도 불리는 책무구조도는 금융회사 임원이 담당하는 직책별로 책무를 배분하고, 금융사고가 발생했을 때 관련 책무를 담당한 임원이 책임을 지도록 하는 제도다.

관리 의무 이행 실패의 책임을 경영진에게 직접 물을 수도 있어 금융당국은 단기간에 내부통제 강화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책무구조도에 대한 시선은 그리 곱지 않은 않다. 결국 은행들의 말뿐인 '내부통

제 강화' 약속으로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을 요하기 때문이다.

개인의 일탈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은행 내부 시스템에서 걸러내지 못했다는 것은, 결국 내부통제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는 뜻이기 때문에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다. 금융회사들의 자체 내부통제 강화 움직임으로는 금융사고 재발을 막기에 역부족인 건 사실이다.

결국 이런 사고들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개인의 양심이 중요하다. 돈을 다루는 금융권 직원의 만큼 흔들릴 때도 있겠지만 양심을 팔고서 얻은 돈이 값진 것인지 돌아켜 볼 필요가 있다.

잘못한 사람들이 책임져야 한다는 말도 있지만, 금융권에서의 잘못된 책임 질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스포츠에만 페어플레이 정신이 있는게 아니다.

/lgy2665@metroseoul.co.kr

오늘의 운세 7월 11일 (음 6월 6일) http://www.saju4000.com



36년생 망해 버린 나라의 옥새를 끌어안고 있어 본들, 48년생 머리만 믿고 있다가는 일을 그르친다. 60년생 지나간 인연이 찾아오니 혼란스럽다. 72년생 지금 주변이 수 상하니 말조심해야. 84년생 천 리 길도 한걸음부터이니 우선 시작해.



37년생 남의 눈에 티끌만 보지 말고 내 잘못도 생각. 49년생 걱정은 버리고 과감하게 행동해라. 61년생 먼저 주면 다시 큰 것을 얻는다. 73년생 재상이 아프면 남의 살도 아프다. 85년생 기쁨과 근심은 동전의 양면과 같으니 마음먹기 나름.



38년생 앞에 나서게 되나 다른 사람들의 질투를 받는다. 50년생 과유불급이니 지나친 운동을 삼가라. 62년생 날세 탓만 하지 말고 밖으로 나가보라. 74년생 오늘 오후 하늘에서 꽃비가 내린다. 86년생 모난 돌이 정 맞는 법이니 자중해라.



39년생 노력한 보답이 주어지지 보람이 있다. 51년생 오늘은 초대받은 손님으로 환영을 받는다. 63년생 한발 물러서면 그다지 손해는 아니다. 75년생 어항 속 물고기처럼 답답한 하루다. 87년생 여의주를 얻은 격이니 승진 소식이 있겠다.



40년생 금전 문제로 속상할 일이 발생. 52년생 원하던 일이 순조롭게 풀리고 재물도 들어온다. 64년생 바람이 불어대니 방향이 시작. 76년생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라는 노래처럼 수동적이기보다는. 88년생 여러 가지로 오늘 행운이다.



41년생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일을 처리. 53년생 인정은 변하기 쉬우나 그래도 양보를 해 보라. 65년생 나도 언행이 맞지 않을 때가 있으니 타인을 배려. 77년생 직장에서 게을러지지 않기를. 89년생 취 날이니 즐거움 모임 약속 있다.



42년생 걸이 다르고 속 다름 것이 사람인데. 54년생 개구리 울창이 적 생각 못 한다. 66년생 꿀을 얻으려면 벌통을 먼저 손질해서 놓아야 한다. 78년생 오늘은 영업결과 이익이다. 90년생 우물거에서 송충 찾지 말고 일은 순서대로 해 보자.



43년생 무심결에 한 말이 상대에게 상처를. 55년생 운전할 때 이리저리 가봤자 오분 상관이다. 67년생 운이 상승하기 시작하니 무슨 일든 시작. 79년생 병도 약도 다 제 할 몫이니 조심. 91년생 독단적인 일 처리는 가족에게 원망 산다.



44년생 하늘이 푸르니 마음에서 희망이 보인다. 56년생 남들보다 앞서 나가는 것이 불편하다. 68년생 일시적인 감정이 상대의 오해를 사니 조심할 것. 80년생 뒷사람과의 불화가 의심되니 나서지 마라. 92년생 영업에서 이익이 발생하니 감사.



45년생 돈에 따라 간에 붙었다 슬개에 붙었다 하는 것이 현실. 57년생 욕심이 화가 되니 내 것이 아닌 것을 탐하지 마라. 69년생 자식 자랑에 입이 쉬지 않는다. 81년생 기쁨은 좋은 것을 포기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도록. 93년생 오후 운전조심.



46년생 같은 말이라도 아 다르고 어 다르니. 58년생 달콤한 속삭임이 있으니 투자조심. 70년생 욕심이 지나치면 매매가 성사되기 어렵다. 82년생 오늘 조심해야 돌리기도 두드리고 가야 한다. 94년생 고양이에게 생선을 지키려면 어찌 될까.



47년생 가장 큰 미덕은 허를 구속할 줄 알아야 한다. 59년생 망설이다가 좋은 기회를 놓칠 수 있으니 결단이 필요. 71년생 흘리는 대로 버려두라. 83년생 벼의 말에 기분이 상해도 이해. 95년생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니 잔소리 꼭꼭 조심.



## 김상회의四季 인공지능과 사주학

존재란 무엇일까.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고 일갈했던 데카르트의 말이 아니더라도 문명을 발전시켜온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자부할 수 있는 이유가 생각하고 사유하는 능력과 기능 직관과 통찰 때문이 아닐까. 하나를 배우면 열을 아는 물리가 트이는 지혜의 습득이야말로 인간들의 고유한 능력이다. 그래서 세상 다 가진 것 같은 인류는 과학을 발전시켜 상상 속에서만 가능하던 달나라는 물론 저 먼 우주에까지 탐사선을 보내어 미지의 세계를 탐구하고 있다. 그런데도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치 사람 속마음은 알 수가 없다.

웃는 얼굴 다정한 태도라 해도 보이는 게 다가 아닌 게 바로 사람 마음속이니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만 있다면 세상사 사기나 고통은 반 이상 줄어들 수 있다. 글썽, 요즘 인공지능 AI가 못 하는 게 없으니 독심술까지 해낼지도 모를 일이다. 오히려 AI가 인간을 지배하는 날도 오지 말란 법이 없다고 우려하는 판이다. 그러나 AI가 없던 시절에는 무엇으로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을까. 예나 지금이나 우선 관찰이 일차적이었을 것이다. 단지 표정으로 기분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타고난 성향이나 기질 복까지도 아는 것이 가능하다.

관찰은 단지 얼굴 모양새만 보는 것이 아니다. 골상이라 하여 뼈의 형태와 단단함 그 뼈에 붙은 살의 많고 적음 역시 기질과 운명을 아는 좋은 보조가 된다. 그러나 사람을 읽는 수단의 백미는 역시 타고난 사주 구성 아니겠는가. 연월일시야말로 자연인 한 인간의 읽을 수 있는 첩경이다. 성격 성품 수명 재물 명예와 고난은 물론 인간관계 그 어느 것 다뤄지지 않는 것이 없다. 무릇 해와 달과 별의 운동에 기반한 선인들의 통찰은 그 시대의 AI가 아니었는지.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문제풀이: 3x3 �도쿠 X는 가로세로 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회색 9곳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고난도의 퍼즐과정을 즐기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김승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470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574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지역 이모저모

경남도, 경제자유구역 864만평 규모 확대



안동시는 행정안전부 주관인 '고향올래(GO鄉ALL來) 공모사업의 위케이션 분야에 선정됐다.

안동시

'고향올래' 위케이션 분야 선정

안동시는 지난 9일 행정안전부 추진 '고향올래(GO鄉ALL來) 공모사업의 위케이션 분야에 최종 선정됐다. 이번 선정으로 총사업비 20억 원(국비 10억원, 지방비 10억원)도 확보했다.

선정된 사업은 근로자가 휴가지에서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면서 휴양을 즐길 수 있는 기업연계형 시설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지친 일상의 회복을 넘어 새로운 재도약을 위한 기회의 공간 구축을 목표로 안동형 한옥올래(五~Re) 5대 힐링 전략으로 이어지는 차별화된 선순환 체계 구축을 통한 체류형 생활인구 유입 극대화를 목표로 본사업을 기획했다. /안동(경북)=정영우 기자 ycyw57@

담양군

전남 농어촌 군서 삶의 질 '1위'

전남 담양군이 전남 농어촌 군(郡)에서 가장 삶의 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담양군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농어촌 삶의 질 평가에서 보건복지 분야 4위, 문화공동체 분야 12위로 전국 79개 농어촌 군 지역 중 8위, 전남 17개 군 가운데 1위에 올랐다.

농어촌 삶의 질 지수는 기존 통계자료를 활용, 농어업위에서 개발한 것으로 ▲경제 ▲보건·복지 ▲문화·공동체 ▲환경·안전 ▲지역활력 등 5개 영역 20개 지표를 구성하고, 계층화 분석법(AHP)을 활용해 지수를 산출했다. /담양(전남)=양수영 기자

광주시

폐지 어르신에 '폭염물품' 지급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만 65세 또는 장애인 등 지원이 필요한 폐지 수집 어르신 607명을 대상으로 '폭염 안전물품 꾸러미'를 지급한다.

'폭염 안전물품 꾸러미'는 재사용이 가능한 가방에 휴대용 선풍기, 형광 망사 안전조끼, 양우산, 쿨스카프, 쿨패치, 벌레약, 식염포도당, 자전거 후미등 등 9가지 물품과 폭염 행동요령 소책자가 담겨있다.

안전물품 꾸러미는 각 구청을 통해 전달되며, 폐지 수집 어르신들의 안부를 함께 확인할 계획이다. 또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 교육을 실시해 보다 안전한 수거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광주=양수영 기자

창원, 거제, 김해 면적 확대  
진해신항·가덕도신공항 건설  
용지 부족 문제 해결 목표

경남도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의 창원·거제·김해 28.65㎢(864만 평) 규모 확대 지정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계획 면적은 창원 6.2㎢, 거제 8.45㎢, 김해 14.0㎢이다.

경남도는 경제자유구역을 확대해 글로벌 수준의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고, 진해신항,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따른 산업·물류·업무시설 등 용지 부족 문제를 해결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내 조성된 경남지역 물류·산업용지는 3.84㎢로 이 중 99.2%인 3.81㎢는 분양되어 물류·산업용지가 현저히 부족한 실정이다. 해양수산부의 제4차 항만배후단지 개발 종합계획에 따르면 진해신항과 가덕도신공항의 준공 시점인 2030년에는 항만배후단지가 5.79㎢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남도는 지난해 7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시행한 경제자유구역 확대 수요조사에서 창원에 국한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을 김해시와 거제시를 포함하는 확대 계획을 세우고 면적을 19.6㎢에서 48.25㎢로 2배 이상 확대하는 것으로 신청했다. 이후 경남도는 산

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등 유관기관과 경제자유구역 확대를 위한 협의를 지속하고 있다.

경남도의 경제자유구역 확대 구상안을 보면 지역 특성을 고려해 창원지역은 첨단융복합 제조산업과 복합물류, 거제지역은 관광·휴양, 김해지역은 물류거점으로 개발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개발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먼저 해양수산부와 협의해 창원시 안골동 옥망산 인근 신항배후단지 0.28㎢(약 9만 평)를 연내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으로 추가 지정 신청할 계획이다.

또 경제자유구역 확대 대상지 중 개발제한구역이 포함되는 지역은 해

제를 위해 국토부에 국가·지역전략사업 인정 신청을 지난 5월 완료했고, 항만배후단지 종합계획과 국가 첨단물류플랫폼 구축계획 등의 국가사업 계획 확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경남도는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의 하동권역을 우주항공산업과 연계하여 진주·사천·남해 등으로 확대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박완수 도지사는 "경제자유구역 확대 지정과 차별화된 개발을 통해 글로벌 수준의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여 경제자유구역이 세계 최고의 물류·비즈니스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남=이도식 기자

metrobusan@metroseoul.co.kr

기장군, 'KTX-이음 정차역' 유치대회

15개 유관기관 기관장 참석  
부·울·경 중추도시, 관광단지 등  
대규모 교통 수요 대응 위해 필요

부산 기장군은 지난 9일 기장군청사에서 기장군기관장협의회 주관으로 'KTX-이음 정차역 기장군 유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정종복 기장군수, 박홍복 기장군의회 의장 등 15개 유관기관 기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군청사 로비에서 유치 염원 구호를 함께 제창하면서 KTX-이음 정차역 기장군 유치 촉구에 한 목소리를 냈다.

이날 참석한 기관장은 노영진 국민건강보험공단 기장지사장, 이돈하 국민연금공단 동부산지사장, 박선희 기장우체국장, 이창훈 동남권원자력의학원장, 이광훈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장, 이상석 민주평화통일

지문회의 기장군 협의회장, 강주훈 기장문화원장, 정종복 기장군수, 박홍복 기장군의회 의장, 송수호 동부산농협 조합장, 문용환 기장수협 조합장, 한삼섭 농협중앙회 기장군지부장, 이동욱 한국전력공사 기장지사장, 노근우 부산기장JC 회장, 송성태 바르게살기 기장군협의회장이다.

정종복 기장군수는 "기장군은 부·울·경 중추도시로 급격히 성장하고 있으며 오시리아관광단지 및 동남권방사선 의과학단지 등 지역 내 대규모 교통 수요에 대응하려면 KTX-이음 정차역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KTX-이음 정차역 유치로 앞으로 부산~양산~울산 철도와 연계해 기장군의 교통망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여러 기관장들의 전폭적인 협력과 지원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기장(부산)=이도식 기자



영덕군 고래불해수욕장 모습.

/영덕군

영덕군 7개 해수욕장, 내일 동시 개장

내달 18일까지 운영

영덕군이 지정 운영하는 고래불, 대진, 경정, 오보, 하저, 남호, 장사 7개 해수욕장이 오는 12일부터 일제히 개장한다.

이들 해수욕장은 다음 달 18일까지 38일간 운영되며, 개장 초기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개방되나 성수기인 이달 20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오후 7시 30분까지 연장 운영한다.

고래불해수욕장의 경우 다음 달 8일부터 11일까지 피서철 손님맞이를 위한 비치사커대회를 비롯해 해변 노래자랑, 백합 줍기 체험행사 등의 다양한 즐길 거리를 마련했다.

한편, 대진해수욕장은 청소년 어울

마당, 광어 맨손잡이 체험, 백합 줍기 체험행사를 실시하며, 장사해수욕장은 상시 어린이 버블 풀장을 운영하고 매주 주말에는 최기정과 함께하는 해변 페스티벌이 열려 한여름의 추억을 선사할 계획이다.

영덕군은 장구군이나 대장군과 같은 유해 세균 수질검사, 백사장 모래 유해 중금속 검사 등 해수욕장 안전검사를 진행해 적정 판정을 받았다.

특히 인명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 요원과 울진해양경찰서가 합동 현장 교육을 시행하고, 127여 명의 인명구조요원 및 군·경찰·해경·소방서 인력을 배치하여 일몰 후의 순찰 강화를 통해 완벽히 할 예정이다.

/영덕(경북)=김종설 기자 kimjongseol@

"휴가철 바가지 요금 없는 부산으로 오세요"

오늘 오후부터 대규모 홍보 캠페인

부산시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구·군 및 국민운동단체와 함께 11일 오후부터 대규모 홍보 캠페인을 벌인다.

시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바가지요금 없는, 친절하고 따뜻한 정이 느껴지는 부산'을 홍보하고, 부산이 관광객들의 편안한 여행을 위해 준비되어 있음을 알리는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캠페인은 11일 오후 5시 30분부터 부산의 대표 관광지인 광안리해수욕장, 해운대해수욕장과 부산의 관문인 부산역 등 3곳에서 구·군, 국민운동단체 등 12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

행될 예정이다.

이번 캠페인에 참여하는 국민운동단체는 한국자유총연맹 부산시지부, 부산광역시 새마을회, 바르게살기운동 부산광역시협의회 등이며 동구, 해운대구, 수영구가 참여한다. 나머지 구·군은 지역 내 주요 관광지에서 자체 릴레이 캠페인을 7월 중 전개할 예정이다.

시는 캠페인 진행 전에 3개 권역의 관광안내소 등을 방문해 관광수용태세를 점검하고, 캠페인에서는 관광객에게 부산의 주요 관광 정보를 편리하게 검색할 수 있도록 시 누리집 QR코드가 들어간 홍보 물품도 배부하기로 했다. /부산=이도식 기자

정읍시, '시민과의 대화'로 소통 행보

이학수 시장, 23개 읍면동 방문

정읍시 이학수 시장이 '2024년 시민과의 대화'로 시민 소통 행보를 이어나간다.

이 시장은 지난 9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정읍시 23개 읍면동을 방문하여, 각계각층의 시민들을 직접 만나

시민중심 행정을 구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 표명이다.

이번 시민과의 대화는 시정운영 방향과 현재 시가 추진 중인 주요 현안에 대해 직접 설명하고, 현장에서 직접 시민들의 질문을 받아 답변하는 자유토론 형식으로 진행된다.

/정읍(전남)=양수영 기자 ysn6313@

뉴스이모저모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바이든, 나토 정상회의 연설 무사 소화...토론때와 달랐다 /사진 뉴스스  
▲美, '원전 허가 기간 단축' 법 제정... '친환경·에너지 안보 강화'

▲크렘린궁, 北 군사교육대표단 방문에 "모든 분야 협력 심화"  
▲젤렌스키 "11월美대선까지 기다리지 말고 지금 도와달라"



▲중국 6월 CPI 0.2% 올라...5개월 연속 상승세 /사진 뉴스스  
▲일본 증시, 닛케이지수 이틀 연속 최고치 경신...토픽스도 2900선 돌파





맥도날드 농가와 상생 4탄 '진주 고추' 버거 선배 L1



Life

축각패드 등 K-바이오 최신통계공유 L2



# 고소득도 무자녀도 '반값 전세' 신혼부부 장기전세주택 나왔다

서울시, 신혼부부 300가구 모집 59㎡ 타입 4억대... 시세 50% 수준 월소득 974만원 맞벌이 신청 가능 10년 거주 보장, 출산 가구는 20년



오세훈 서울시장 10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신혼부부 장기전세주택 II(SHift2)' 공급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서울시가 '장기전세주택 II' (SHift 2) 선정 기준을 과격적으로 완화하고, 본격적인 공급에 나선다. 제1호는 올림픽파크포레온(강동구 둔촌동)으로, 이번에 당첨되는 신혼부부 300가구는 올 12월 초부터 입주하게 된다.

서울시는 오는 23~24일 (예)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올림픽파크포레온 장기전세주택 II 입주 신청을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장기전세주택 II는 출산 또는 결혼을 앞둔 신혼부부에게 안정적인 주거와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서울시가 마련한 주택 정책이다.

전용면적 49㎡ 150세대(무자녀 가구)·59㎡ 150세대(유자녀 가구)를 모집하며, SH공사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올림픽파크포레온의 면적별 전세보증금은 49㎡의 경우 3억5250만원, 59㎡는 4억2375만원이다. 올 7월 기준 49㎡는 6억원대, 59㎡는 8억원대로 시세가 형성돼 있어 50% 저렴한 가격에 입주 가능하다고 시는 강조했다.

혼인신고한 날로부터 7년 이내인 신혼부부 또는 모집 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공급한다. 부부 모두 공고일 기준 5년 이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소득 기준도 대폭 완화했다. 전용면적 60㎡ 이하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20% 이하(맞벌이 가구 180%), 60㎡를 초과하는 경우엔 가구당 월평균 소득 150% 이하(맞벌이 가구 200%)면 공공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다. 자녀가 없는 맞벌이 신혼부부의 경우 월평균 소득이 974만원인 가구도 신청 가능하다.

저출생 대응을 위한 대책인 만큼 입주 이후 출산하는 가구에 대한 지원은 더욱 강화된다. 자녀 한 명만 출산하더라도 '소득·자산 증가와 관계없이' 재

계약(2년 단위)할 수 있게 된다.

시는 20~30대 초반 젊은 신혼부부의 입주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무주택 기간 가점을 폐지하는 대신 ▲서울시 연속 거주 기간 ▲청약저축 납입 횟수로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올림픽파크포레온 장기전세주택 II 서류심사 결과는 내달 9일, 최종 당첨자는 오는 10월 7일에 발표한다. 당첨자는 올 12월 4일부터 입주하게 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처음에 10년 거주 기간을 보장하고 아이 낳으면 20년을 보장한다"며 "또 20년 살고 난 다음에 주변 시세의 10%를 할인하고, 셋을 낳으면 20% 저렴한 가격에 주택을 살 수 있게 하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 서울시, 정부에 철도사업 예타 개선 건의

경제성 평가 비중 하향 등 손질 요구 철도사업 속도... 균형발전 이끌 것

서울시는 이달 9일 수도권 철도사업 신속 추진을 위해 교통 분야 예비타당성조사(예타) 개선 방안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교통 소외지역에 조성 예정이었던 강북횡단선 등이 정부 예타를 통과하지 못해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며 "이번 건의로 변화하는 교통 환경에 걸맞은 수도권 철도 인프라를 확보해 시민 편의를 높이고 강남북 균형발전을 이끌어 내겠다"고 설명했다.

예비타당성조사는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국가재정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도로, 철도 등 재정사업에 대해 사전에 타당성을 검증하고 평가하는 제도다.

시는 현 제도상 수도권 도시철도 사업은 경제성 평가 비중이 비수도권에 비해 과도하게 높고 서울 내 저개발지의 지역균형발전 효과 등의 항목이 반

영되지 않아 예타 통과가 어렵다고 진단했다.

이번에 서울시가 마련한 정부 건의안에는 ▲종합평가 항목별 비중 조정 ▲신규 편의 발굴 및 기존 편의 개선 ▲서울 내 지역균형발전 효과 평가 등 크게 3개 분야에 대한 개선 내용이 담겼다.

우선 시는 수도권 지역 경제성 평가 비중을 현 60~70%에서 50~60%로 하향하고 정책성 평가 비중을 30~40%에서 40~50%로 상향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시는 철도사업 과급 효과와 2019년 이후 수도권 평가항목에서 제외된 지역균형발전 효과를 정책성 평가시 특수평가 항목으로 적용해달라고 건의했다. 철도사업으로 기대되는 편의이나 예타 시점에는 인정받지 못했지만 장래가치 등 지역개발 과급 효과를 편익에 적용할 경우 정책성 점수가 높아져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가능성 또한 커질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김현정 기자

# 경기도, 빅데이터로 위기도민 1500명 지원

복지 사각지대 놓인 도민 발굴

경기도가 4월부터 6월까지 빅데이터를 활용해 위기가구 발굴에 나선 결과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위기도민 1500명을 발굴해 지원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도는 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 프로그램을 활용해 의료비를 과다 지출하거나, 금융연체 기록이 있는 노인만으로 구성된 세대 2700명을 선별한 후 31개 시군과 함께 전화 또는 방문 등을 통해 실제 위기상황 여부를 확인했다.

전화와 현장 방문을 통해 발굴된 위

기도민 1500명 가운데 기초생활보장 25명, 차상위 9명, 긴급복지 19명을 포함해 총 218명에게는 공적 급여를 지원했다.

공적 지원 대상이 되지 않으나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1282명에게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민간 자원을 지원하고 신용회복위원회 등 타 기관 서비스를 적극 연계해 위기 상황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도왔다.

도는 이달까지 추가 조사를 마친 후 지원이 필요한 경우 공공·민간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획발굴을 계속할 방침이다.

/경기=유진재 기자 yujin@

# 교육부, 의대생 유급 우려에 '학년제' 전환

의대생 유급방지 가이드라인 성적처리 내년 2월까지 연기 3학기제, 보충수업 가능성도

그간 학기제로 운영되던 의대 학사가 올해에만 학년제로 전환돼 1학기 성적 마감 기한이 내년 2월까지 미뤄진다.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하며 동맹 휴학 중인 의대생들의 유급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의대생 유급 판단 시기 역시 내년 2월이 기준점이 된다. 의대생들이 올해 안에 돌아오지 않을 경우, 내년 수강신청 우선권은 내년 신입생들에게 주어진다. 정부는 본과 4학년을 위한 의사 국가시험 추가 실시도 검토한다.

교육부는 10일 이런 내용을 담아 '의

과대학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의대생들은 의대 증원에 반발해 지난 2월부터 집단 휴학계를 제출하고 수업을 거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의대생 복귀를 독려하고, 이후 유급을 당하지 않고 진급할 수 있도록 특별로 이번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우선, 올해에 한해 각 대학은 의대 학생 유급 판단 시기와 대상, 기준을 상황에 맞게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지난 1학기 대다수의 의대생들이 교과목을 정상 이수하지 못한 상황임을 고려해 각 대학은 1학기 성적처리 등을 마감하지 않고 학년말까지 이를 보완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및 평가를 학기 단위가 아닌 학년 단위로 전환해 운영할 수 있다. 그간 학기

제로 운영되던 의대 학사가 올해는 학년제로 전환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그뿐만 아니라, 그간 학습 결손을 보충하기 위해 각 대학·학년별 상황과 여건을 고려해 학기 조정과 연계한 학년별 교육과정을 조정하고 개편도 가능하다. 예컨대, '3학기'나 '보충 수업'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서도 수업일수를 채울 수 없을 경우 고등교육법 시행령에서 '대학년도 30주 이상'으로 정해진 수업일수를 2주 이내 범위에서 감축하는 방안도 가능하게 할 방침이다.

의학과 4학년 학생의 의사 국시 추가 응시 기회 제공을 위해 정부는 2025년 추가 실시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이현진 기자 lhj@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5:20 | 해질 / 19:55

7월 11일 (木) 음력 : 6월 6일

수도권 날씨 22~31°C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지역별 날씨: 연천 19/32, 동두천 20/31, 가평 19/32, 양평 20/31, 용인 22/30, 평택 21/31, 파주 20/31, 안성 22/28, 수원 22/30, 백령도 20/28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 '마약 투약' 오재원 연루자 29명, 검찰 송치...두산 선수 9명 /사진 뉴스1 ▲KBO, 시각장애인 관람객 대상 중계 음성 지원 서비스 실시

▲팀 K리그 유니폼 공개...산리오 캐리커츨·아디다스와 협업 ▲KPGA, 군산CC 오픈서 역대 최초로 선수들 반바지 허용



▲17세반효진, 43세 이보나...파리로 향하는 최연소·최고령 태극전사 /사진 뉴스1 ▲한국미술품감정연구센터, '아트마켓 트렌드 2024' 발간

버스타비 **잡**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SAMSUNG

## Galaxy Z Fold6 | Z Flip6

Galaxy AI ✨ is here



역대급 강력한 AI 폴더블 폰의 탄생

사전판매 24.07.12~24.07.18

samsung.com

상기 이미지는 연출된 이미지입니다. 일부 AI기능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삼성 계정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플렉스 모드는 75°~115°의 각도에서 안정적으로 동작하며, 해당 범위를 벗어날 경우 완전히 펼쳐지거나 접힐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삼성닷컴에서 확인하세요

